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碩士學位論文

『빌러비드』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 회복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高 賢 珠

2007年 8月

# 『빌러비드』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 회복

指導教授 卞 鐘 民

高 賢 珠

이 論文을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으로 提出함

2007年 8月

高賢珠의 教育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准함

審査委員長 \_\_\_\_\_ (印)

委 員 \_\_\_\_\_ (印)

委 員 \_\_\_\_\_ (印)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2007年 8月

<국문초록>

『빌러비드』에 나타난 흑인 여성의 공동체 의식과 정체성 회복

高賢珠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卞鐘民

미국문학에서 토니 모리슨은 아프리카계 흑인문학의 전통을 확고히 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한 여성작가로 평가된다. 모리슨은 흑인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선배작가들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성의 주체적 시각을 적용함으로써 흑인문학의 지평을 확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모리슨은 1988년 풀리처상 수상작인 그녀의 다섯 번째 소설 『빌러비드』를 통해 노예제도의 경험이라는 가장 고통스러운 과거에 의해 현재까지 지배받고 있는 흑인들의 모습을 그려내고 있다. 또한 재기억의 방법을 통해 그들의 내면 인생을 매우 적절하게 표현하였고, 더불어 그들의 과거에 대한 극복의 방법까지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기억 속에서 억압되었던 흑인들의 과거 경험과 잠재된 과거사의 상처를 솔직하게 대면함으로써 그 기억들이 재해석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이 논문은 『빌러비드』를 통하여 모리슨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흑인들의 정체성 회복과 공동체 의식의 문제를 분석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소설의 주인공인 시이드는 죽은 딸의 환생인 빌러비드로 인해 과거를 재기억함으로써, 잃어버린 현재의 삶으로 되돌아온다. 빌러비드는 시이드가 살해한 아기의 환생인 동시에, Middle Passage와 노예제도의 역사 속에서 고통받고 이름없이 죽은 모든 흑인들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빌러비드를 통해 억압된 과거를 재기억하는 일은 흑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복원을 위해 흑인사회가 치러야할 치유의 과정이다. 덴버는 빌러비드에 의한 재기억의 고통을 극복하고 자유와 미래로 진진하도록 하는 중재자이다. 그녀는 흑인여성의 경험을 역사의 맥락에서 이해하고, 흑인 공동체와의 화합과 치

※ 본 논문은 2007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유의 가능성을 연계하는 역할을 한다.

모리슨은 『빌러비드』를 통해 흑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공동체 의식의 재정립에 대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흑인들의 내면의 고통을 드러내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세월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아물지 않는 흑인들의 내면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고자 하였다.



## 목 차

I. 서론 .....	1
II. 흑인 문학과 정체성의 문제 .....	7
III. 자아의 소멸과 정체성 상실 .....	15
IV. 정체성 회복의 과정 .....	29
1. 모성애를 통한 자아실현의 한계 .....	29
2. 공동체 의식을 통한 정체성 회복 .....	43
V. 결론 .....	49
참고문헌 .....	52
Abstract .....	54

## I. 서론

제3세계 문학에 속한 흑인문학은 세계문학에서 뿐만 아니라 미국문학에서도 소외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대 등장한 흑인 작가들은 흑인의 뿌리와 정체성을 찾고자 과거 희생자들의 기억을 통해 공동체적 연대의식을 고취시키려 했다. 그 중에서 토니 모리슨(Toni Morrison)은 흑인문학을 백인중심의 미국 문화적 공간에서 확고히 자리를 잡게 한 작가이다. 모리슨은 샌디 러셀(Sandi Russell)과의 대담에서 자신은 “자아가 소멸되었던 흑인 여성들, 이들 흑인 여성들을 위하여 글을 쓴다.”<sup>2)</sup>고 말하면서 자신의 작품을 인종적, 성적으로 소외된 이종의 억압 속에서 말 한마디 하지 못한 채 가슴에 묻어 두었던 미국 흑인 여성들의 삶을 하나씩 풀어가는 데 그 목적이 있음을 명확히 한다.

1970년대 미국사회는 그동안 소외되어온 계층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많은 흑인 여성작가들이 나타난다. 이들 여성 작가들은 현대 미국문학에 새로운 소재, 시각, 다양한 문체로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었다. 이들은 20세기 후반 흑인 문학의 중심을 이뤘던 라이트(Richard Wright)와 엘리슨(Ralph Ellison), 볼드윈(James Baldwin)과 같은 흑인 남성작가들이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흑인 여성의 삶을 진솔하게 그리기 시작했으며, 흑인 여성들의 역사와 문화를 재조명하고, 흑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고통의 굴레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와 여기에서 비롯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아인식’의 과정과 결부시키고, 나아가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흑인사회라는 공동체와 결부시키려고 노력했다.<sup>3)</sup>

이들 흑인 여성작가들 중에서 모리슨이 가장 주목받는 이유는 심도있는 사회문제를 섬세한 기교로 표현하는 문학성 때문이다. 모리슨은 잘 짜인 문장 구성과 압축된 대화, 절묘한 인물 묘사로 높은 평가를 받아 오고 있다. 그녀의 내러티브는 생생하고 정확한 시적 이미지와 풍성하고 섬세한 문체로 자주 마술

2) Sandi Russell, "It's OK to say OK: An Interview of with Toni Morrison,"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s Y. McKay (Boston: G. K. Hall, 1988), p. 46.

3) Linda Krumholz, "The Ghosts of Slavery: Historical Recovery in Toni Morrison's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26 (1992): 365.

적, 음악적, 시적이라고 묘사되어 왔다. 즉 백인지배 문화에서 이제까지 가려져 온 그 누구도 표현하지 못했던 진실을 여성의 섬세한 시각과 관점으로 관찰하고 표현한 것이다. 그리고 모리슨의 작품에서 그려지는 인물들은 흑인성을 초월하여 보편성을 확보한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되어지고 있다. 아울러 모리슨은 주변으로 밀려 난 흑인, 특히 흑인여성의 특수한 경험과 문화를 조명하여 미국 사회의 모순을 노출시키고 흑인여성의 상실된 목소리를 되찾아 주는 주체적 글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또한 모리슨은 ‘마을문학’을 창조하는 것으로 흑인민족의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려 한다. 모리슨에게 있어서 ‘마을문학’은 흑인 고유의 음악과 구전전통이 담당했던 역할을 떠맡아서 현재의 문제점과 모순을 명확히 드러내고, 과거에 가치 있는 것을 받아들여 흑인들에게 정신적인 자양분을 공급함으로써 건강한 자아의식을 갖고 현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문학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모리슨은 각 작품마다 흑인가치와 백인가치의 대립구도를 설정하고 흑인 인물이 백인문화에 함몰되어 파괴되거나 백인중심의 가치에 저항하면서 문화적인 정체성을 추구하는 주제를 통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한다. 예를 들어 『솔로몬의 노래』(*Song of Solomon*)에서 밀크맨 데드(Milkman Dead)는 백인남성의 가치에 함몰된 아버지의 영향에서 벗어나 고모가 표상하는 흑인 전통문화에 뿌리박은 보다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이며 평등한 세계로 들어가면서 비로소 성숙한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또한 모리슨에게 있어 공동체와 개인의 성장이 맺고 있는 관련성은 흑인 남성작가들과 확연히 구분된다. 가령 라이트와 엘리슨을 비롯한 대부분의 흑인 남성작가들은 흔히 흑인의 자아를 억압하고 왜곡하는 백인사회의 부정과 이에 대항하는 흑인의 경험을 형상화함으로써 흑인의 삶을 단순히 백인과의 갈등으로 묘사했다면, 모리슨은 흑인사회의 내부에 있는 갈등을 표면으로 끌어올려 해결책을 모색해왔다. 그래서 모리슨은 원래 상부상조했던 흑인 공동체가 백인들에 의해 자행된 역사적 침해 속에 자기파괴적으로 변질되어 질시와 반목을 일삼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살아 숨쉬는 흑인 공동체를 형상화시켜 놓고 있다.

모리슨의 작품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또 다른 문제는 흑인들이 자신들의



문화와 역사를 올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까지 백인과 흑인 모두가 말하기를 꺼려했던 흑인들의 문화에 대한 정확한 역사의식이 인종적, 문화적인 정체성 확립에 필수적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따라서 모리슨은 『재즈』(Jazz)와 『빌러비드』(Beloved)를 통해 매장되거나 잊혀진 흑인의 역사를 발굴하여 흑인의 뿌리를 찾아 나서려 했다. 즉 『빌러비드』는 침묵당한 흑인 노예 여성의 역사를 재창조하여 복원하고, 『재즈』는 노예해방 이후 새로운 삶을 향해 북부의 산업도시로 이주한 흑인들의 체험을 복원한 것이다.

모리슨은 흑인들이 처했던 특수한 상황, 즉 노예제도하에서 흑인들의 정체성 추구를 일관된 주제로 삼고 있는 작가이다. 모리슨은 1969년 흑백의 이분법적인 구분 속에서 백인의 푸른 눈을 열망하다가 미쳐 가는 비극적인 소녀 이야기를 다룬 『가장 푸른 눈』(The Bluest Eye)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소설가로서 활동을 시작했다. 그 이후 모리슨은 넬(Nel)과 술라(Sula)라고 하는 두 소녀의 각기 다른 정체성 추구의 과정을 그리고 있는 『술라』(Sula), 자유를 찾아 아프리카로 비상해간 흑인노예를 노래하면서 백인 중심 담론의 해체와 흑인 중심의 대항담론에 대해 탐색하고 있는 『솔로몬의 노래』, 타르베이비 민담을 소재로 생존과 자유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타르 베이비』(Tar Baby), 노예제도로부터 자식을 지키기 위해 어린 자식을 살해하는 노예 어머니의 이야기인 『빌러비드』, 흑인 전통에서 발달한 재즈라는 새로운 음악형식을 창조한 1920년대를 배경으로 이민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재즈』, 그리고 가장 최근작인 『파라다이스』(Paradise)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흑인의 정체성 문제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 중 그녀의 다섯 번째 작품인 『빌러비드』가 가장 주목 받는 이유는 흑인으로서 정체성을 찾는 주인공을 통해 개인은 물론 가족, 이웃으로 형성된 공동체의 인간관계를 규명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모리슨은 이 작품에서 한 흑인 여성의 내면적 자아성찰이라는 한정된 범주를 넘어 흑인들의 공동체적 삶을 그려내고, 이는 더 나아가 조상의 개념, 종족의 문화유산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그동안 모든 영역에서 배제되었던 역사의 복원을 시도하는 것이다.

『빌러비드』는 모리슨이 랜덤하우스에 재직할 당시 『흑인실록』(The

*Black Book*)을 편집하던 중 접하게 된 가아너(Margaret Garner)의 이야기를 근거로 한 것이다. 1850년 켄터키 주의 노예주인 게인즈(Archibald K. Gaines)로부터 오하이오 강을 건너 탈출한 가아너는 신시내티의 어느 집에 그녀의 남편 로버트와 4명의 아이들과 함께 숨었으나 뒤쫓아 온 게인즈와 백인 관리들에 의해 잡힐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문을 부수는 백인들을 향한 남편의 저항이 무기력하게 되자 가아너는 옆에 있던 도살용 칼을 들어 가장 사랑하는 딸의 목을 자른 후 나머지 아이들과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다가 붙잡힌다. 가아너는 자신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자식들이 노예제도하에서 인간이하로 전락하게 내버려 두기보다는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이러한 가아너의 처절한 선택의 이야기는 『빌러비드』에서 시이드(Sethe)로 부활하고 그녀가 살해한 딸 빌러비드에 관한 이야기의 근거가 되었다. 모리슨은 가아너의 인생에서 『빌러비드』의 소재를 택하여 노예 엄마가 갖는 모성애의 극단적인 행위를 재창조하고, 노예제도에 의해 파괴된 흑인의 정체성과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이까지 죽여야만 했던 노예제도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 흑인여성이 자식을 죽였다는 사건 그 자체를 묘사하기보단 그럴 수밖에 없었던 원인을 조명하고, 그 사건 이후 그녀의 삶을 창조함으로써 흑인들의 고통을 이야기하고자 한 것이다.

모리슨은 이 작품을 통해 노예제도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현실에서도 흑인여성들에게 강인한 힘이 존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의 원천은 흑인여성들의 모성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흑인들이 노예로 팔려오면서 그들의 전통은 사라지고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져 가부장적 가족형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아버지의 부재는 어머니가 그들을 대신하여 가족을 지키고 양육하는 역할을 하는 모계중심의 가족형태를 형성하였다. 따라서 흑인사회의 주축이 되는 모성을 이해하는 것은 흑인여성의 자아인식과 새로운 정체성을 구명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이드가 사랑하는 딸을 직접 살인한 것은 자신의 삶의 유일한 근거가 되는 자식들이 노예제도하에서 인간이하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시이드의 모성은 자식을 부양하고 보호하는 강인하고 희생적인 어머니의 모성을 넘어 자식의 생명을 자신의 소유로 보는 오만함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

결과로 자식의 생명까지 잃게 하는 파괴적인 것으로 변질된다. 모리슨은 이 작품에서 극단적으로 변질된 모성을 중요 소재로 다루고 있으며 백인과 남성에게 의해 정형화된 흑인 여성의 정체성을 극복하고 새로운 자아상을 확립하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였다.

『빌러비드』의 비극은 시간과 공간,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어 그 사건의 양상을 단번에 알 수는 없다. 주인공들이 자유롭게 된 이후에도 지난날의 어두운 상처들을 그들 내면에 품고 사는 것은 결코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 말하고 싶지 않은 기억’이라는 것에서 비롯된다. 이런 의식적인 기억상실은 빌러비드를 통해 치유의 과정을 겪는다. 빌러비드는 주인공들의 무의식 속에 잠재되어 있는 과거의 고통스러운 기억을 끄집어내어, 주인공들이 정면으로 이를 맞서게 하여 그들이 잃어버렸던 정체성을 되찾게 함으로써 고립된 개인이 아닌 공동체 속의 일원이 되게 하는 상징적 역할을 한다.

이처럼 모리슨이 작품에서 공동체의 역할을 각인시키는 것은 공동체가 개인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는 근원으로 보기 때문이다. 『빌러비드』의 인물들은 노예제도하에서 살아남은 흑인들이 어떻게 과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보여준다. 다시 말해 모리슨은 ‘기억’과 ‘회상’을 통해 흑인노예의 내적인 삶에 접근하여 그들의 내면에 억압되어 있는 기억을 되살려 심리적인 상처들을 치유하고자 한다. 따라서 이 소설에 등장하는 인물 각자의 경험은 단순히 개인의 역사로서의 의미뿐만 아니라 흑인 공동체의 역사로 확대되어 흑인 공동체의 긍정적인 비전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빌러비드』를 통해 나타나는 흑인 여성의 자인인식의 과정과 정체성 회복, 그리고 공동체 의식의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노예제도가 흑인들에게 가한 고통과 그로 인해 일그러진 흑인들의 삶을 조명해 보고, 그 과정에서 정체성을 상실하는 흑인노예의 모습을 분석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노예제도에 의해 파괴된 흑인 여성의 인간성과 정체성이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한다. 그리고 모성애를 통해 본 흑인 여성의 정체성 확립의 과정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모녀관계를 연구해봄으로써 흑인 여성이 생존해 나갈 수 있는 삶의 근거와 그들의 정체성을 재확립하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다. 또한 이 과정에서 모성애에 집착한 주인공 개인의 노력만으로는 올바른 자아확립이 어렵다는 것을 조명해 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여성의 자아형성에 있어서 흑인 여성들의 자아인식이 기존 인식의 틀을 깨고 새롭게 재형성되는 과정에서 그들 고유의 가치관을 반영한 공동체의 역할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즉 흑인 여성공동체는 치유와 사랑과 화해의 공간이며 미래에 대한 자기인식과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는 회복의 장소로, 모리슨이 제시하는 흑인 여성의 문제를 공동체를 통해 연구해보고자 한다.



## II. 흑인 문학과 정체성의 문제

제1차 세계대전과 1930년 세계 경제공황 사이 1920년대를 분수령으로 미국 흑인은 옛 사람에서 새 사람으로 변화하는 자신을 목격하게 되었다.<sup>4)</sup> 흑인은 여러 세기 동안 주권을 지닌 인간이 아니라 운명이 정해진 생명체에 불과했다. 그러나 이제는 추종만 하는 온순한 흑인에서 자기 권리를 주장하는 당당한 흑인이 된 것이다. 이로써 미국의 흑인 작가들은 종전에 맞볼 수 없었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었다. 또한 흑인 역사의 변화와 더불어 흑인 작가들의 창조적 상상력이 그 힘을 발휘하게 되었고, 이에 힘입어 흑인의 정체성은 새로운 의미를 부여받게 된다.

흑인문학은 두 가지 운동, 즉 통합운동과 민권운동을 거쳐 1960년대에 이르렀으며 60년대 중반 미국 문학계에는 민권과 흑인 세력 확장운동에 힘입어 흑인작가의 글이 어느 때보다도 크게 범람하게 되었다. 흑인 예술운동의 일환으로 특히 젊은 작가들은 그들의 분노와 좌절감을 드러내었고, 나아가 정치, 문화에 대한 그들의 이념을 강하게 표현하기 시작했다. 비록 많은 작품이 극단적인 성향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들의 부르짖음은 흑인이 세상을 보는 새로운 감각을 인식시켜 오래 내려오던 문학적 전통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즉 흑인문학을 본격적인 궤도에 올려놓은 1920년대의 흑인문예부흥기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작가들이 지속적으로 다룬 것은 흑인의 참된 정체성 의식 - ‘흑인됨(Black Identity)’ 또는 ‘흑인성(Blackness)’ - 을 확립하는 문제였다. 이들은 ‘흑인성’의 근원을 흑인 고유의 전통문화에서 찾았으며 흑인의 긍지를 주장하는 ‘새로운 흑인상’을 내세우기도 했다.

1940~50년대에 활동한 라이트와 엘리슨, 그리고 1960년대의 흑인 미학운동은 전통문화에 담긴 흑인 민족의 지혜와 저항정신을 강조했다. 특히 흑인 민속

---

4) 1920~30년대의 흑인문예부흥(Harlem Renaissance)은 흑인들의 중심 무대였던 할렘을 문화의 중심지로 변하게 하는 전기를 마련한 것이다. 수십만의 흑인들이 일자리를 찾아 남부에서 북부로 이주하고, 이를 통해 할렘은 문화와 예술 그리고 지식의 시대를 맞게 된 것이다.

문화 속에서 대항문화로서의 가능성을 발견했던 라이트는 『토박이』 (*Native Son*)를 통해 흑인의 존재와 생활을 적나라하게 그려내고, 흑인이기 때문에 받아야 하는 백인의 폭력이나 그 위협 아래서의 치욕, 공포, 분노와 사회적 불평 등에 대한 인간성 회복을 과감한 투쟁의 모습으로 그리고 있다.

그러나 그의 작품은 극복된 흑인이 아닌 절망과 암흑 속에서 극단으로 치닫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는다. 볼드윈은 라이트의 항의소설은 인생이나 인간에 대한 거부와 아름다움이나 힘에 대한 거부이기 때문에 예술작품으로서 실패작이라고 비판한다. 또한 엘리슨 역시 라이트의 작품은 백인적인 것을 너무 배격하고, 분노와 공포 등의 부정적인 측면만을 강조해서 흑인의 삶을 오히려 왜곡했다는 평을 하기도 했다. 사실상 흑인의 문화유산에 대한 라이트의 긍정적 견해는 항상 관념적인 차원에서 간략하게 언급될 뿐 작품을 통해 구체적으로 전달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대체로 흑인미학을 주장하는 작가와 비평가들은 ‘서구적’이거나 ‘백인적’인 것 일체를 거부하고 흑인 문학에 대한 처방적인 규범을 제시하는 등의 호전적이고 분리주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달리 엘리슨은 『보이지 않는 인간』 (*Invisible Man*)에서 흑인문화의 다양한 요소를 직접 작품에 도입하여 백인사회에서 흑인들이 느끼는 불가시성과 소외를 세련된 기교로 형상화했다. 즉 많은 상징과 은유를 통해 “I”의 비애와 환멸을 묘사하고, 미국이라는 거대 구조에서 자기 인식을 상실한 흑인의 모습을 그렸다. “I”는 흑인의 모습일수 있지만, 보편적인 인간의 모습으로 볼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흑인문학의 범주를 한 차원 확대시켰다고 할 수 있다.

엘리슨은 실행 가능한 미국 흑인문화 이론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과거를 재발견하고 이해하는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이것은 흑인 종족에게 주어진 억압, 망각, 잘못된 재현에 맞서는 투쟁을 의미한다. 그는 “의식의 한 분야이면서 형식인 역사가 기억되는 것보다 망각되는 것이 많다면 역사는 생략과 왜곡에 의한 일종의 자살, 즉 실패라는 위협에 처하게 된다.”<sup>5)</sup>고 이야기 한다. 아울러 그는 고발 문학의 범주를 탈피해서 구술전통이나 재즈 또는 블루스의 흑인

5) Ralph Ellison, *Shadow and Act* (New York: Vintage, 1972), p. 253.

고유의 유산을 기법화함으로써 흑인문학의 가치를 높였다. 그러나 흑인문학을 한 차원 높이 올려놓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엘리슨은 흑인들이 겪는 소외가 인간의 보편적인 소외일 수 있다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작품 안에서 전개된 구체적인 흑백관계에 대한 의식을 희석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처럼 미국사회에서 초기 흑인문학의 양상은 백인들의 탄압에 대한 흑인들의 분노가 예술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나타나는 ‘고발문학’의 형태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초기 작품들은 흑인 남성 작가들을 위주로 백인 우월 사회 속에서 흑인 남성의 정체성 탐구라는 주제가 두드러졌고, 흑인 여성작가들은 보편적 범주에서 배제되었다. 남성 작가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흑인남성의 정체성을 추구하는 데 전념한 나머지 흑인여성의 현실에 눈을 돌리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의 작품에서 대부분의 흑인여성은 헌신적인 유모형이나 희생자로서 상투적으로 묘사되었다. 즉 노예제 시절과 재건 시기의 남부 백인 문학 작품에서 자주 묘사되는 흑인여성은 백인 주인의 가정과 자녀를 헌신적으로 돌보는 충성스러운 흑인유모와 성적으로 방탕한 여성으로 그려졌다. 그러나 이런 부정적인 이미지는 흑인여성의 현실과는 무관하게 지배계급의 필요에 따라 꾸며진 것에 불과했다.

농장주 계급은 남부의 사회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해 순수한 백인 혈통을 지켜야 할 필요성에 직면하였다. 따라서 백인 여성에게 정숙을 강요하였고, 채워지지 못한 성적 욕구를 여자 노예에게 분출하게 된 백인남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흑인여자가 성적으로 방탕하다는 이미지를 만들어 낸 것이다. 또한 나약하고 우아한 ‘남부 숙녀’의 이미지가 파괴되지 않도록 여주인의 모든 실질적인 책임과 의무를 떠맡을 여성이 필요해서 만들어 낸 것이 백인 가정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흑인 유모의 이미지인 것이다.

흑인 여성작가들은 이런 전형적인 흑인 여성상을 극복하고 흑인 여성의 삶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문제에 전념하게 된다. 60년대까지의 흑인 여성작가들은 백인 문학에서 묘사되어 온 부정적인 흑인 여성의 모습을 거부하고 긍정적인 여성상을 창조하고자 했다. 이들은 중상류층 흑백 혼혈 여성을 주인공으로 설정했으며, 흑인 여성이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는 통념을 반박하기 위해 흑인 여

성을 청교도 도덕의 모범으로 묘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흑인 여성을 긍정적으로 제시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흑인 여성의 현실을 실제로 개선 하기는 커녕 오히려 하층 계급에 속하는 대부분 흑인 여성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어 괴리감만 초래하였다. 그 결과 흑인 여성에 대해 적합하지 못한 또 다른 전형을 만들게 되었다.

그러나 70년대 이후 ‘흑인 정체성 문제’가 더욱 두드러지면서 등장한 흑인 여성 작가들은 흑인 남성 작가들과 이전의 여성 작가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비전을 제시함으로써 흑인문학의 지평을 확대시켰다. 즉 1960년대의 인권 운동으로 시작된 제2의 흑인문예부흥(Neo Black Renaissance)이 1970년대로 이어지면서 백인, 남성이라는 기존문화의 주류 밖에 있던 소외집단에 대한 관심이 사회 각 분야에서 일어났다. 그러한 관심은 문학으로 그 지평을 확대시켰고, 그 중에서도 특히 흑인 여성작가의 활약을 두드러지게 했다.

이런 시대적 흐름과 더불어 토니 모리슨을 비롯한 엘리스 워커(Alice Walker), 글로리아 네일러(Gloria Naylor), 테리 맥밀란(Terry McMillan), 셸리 앤 윌리엄스(Shirly Anne Williams) 등의 흑인 여성작가들이 등장하면서 흑인 여성 문학은 그들만의 형식을 구축하기 시작한다. 이들은 흑인 남성작가들의 저항과 고발문학 형식을 탈피하고, 남성 작가들이 미처 의식하지 못한 흑인 사회의 내면세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흑인의 문제, 나아가 인간의 내면세계를 보다 깊숙이 파헤치고 있다. 특히 이들은 흑인과 여성이라는 이중적인 억압의 굴레에서 겪게 되는 정신적, 심리적 피해와 여기에서 파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를 자아인식의 과정과 연계시키는 것은 물론, 나아가 개인이 겪는 어려움을 통하여 흑인 사회라는 공동체와 결부시키려는 노력을 한다. 즉 현대 흑인 여성작가들은 흑인 여성에 대하여 보다 내밀하게 접근하여 그들의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고, 이것은 그동안 미국사회에서 백인, 남성에 의해 왜곡되어진 흑인 여성 자신의 모습을 주체적인 입장에서 표현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현대 흑인 여성작가들의 특성은 성과 인종 면에서 차별을 겪고 있는 현실 때문에 서구 중산층 여성의 페미니즘과 방향을 달리한다. 즉 그들은 자아 중심적이기 보다는 집단 중심적이며, 문화적인 문제를 접근할 때에도 성과 인종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그 결과 그들은 여성 일반의 문화가치보다 그들 자신의 민족 집단이 지닌 특정한 여성문화 가치에 더 관심이 많았다.<sup>6)</sup> 요컨대 흑인 여성작가들은 남성 작가들과 달리 흑인 공동체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흑인 여성 문학에서는 공동체 안의 다른 여자나 남자의 도움 없이 영웅적으로 성공을 추구하는 여자들이 거의 없고, 다른 여자들과의 우정이 이들의 행복에 필수적인 요소로 그려진다. 즉 여성 작가들은 개인이 겪는 문제를 그 자신의 것만으로 보지 않고, 다른 여성들과의 관계 속에서 풀어 나가려 한다. 흑인 남성에게 대해 적대적인 입장을 취하는 여성 작가들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들은 공동체만이 효과적으로 백인 문화에 저항할 수 있는 힘이라는 생각에서 여성의 문제를 남성을 포함한 흑인 공동체라는 넓은 틀 안에서 보려고 한다.

또한 여성 작가들은 흑인 특유의 유산들을 소재로 하여 흑인 문화를 구축하고자 한다. 예컨대 구술 전통에 기반한 신화와 민담 같은 민속 문화, 흑인 노예 시절부터 비롯된 농장에서의 공동체 문화,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는 희망을 내포한다. 또한 사회 고발적인 흑인 영가와 흑인 음악요소를 문학의 소재로 다양하게 구사하고, 역사적으로 흑인 여성들이 담당해 왔던 ‘부두교 주술’(voodoo)<sup>7)</sup>이나 ‘죽은 사람 영혼 불러내기’(conjuring) 같은 민속 종교와 약초요법, 산과술 따위의 민간요법을 작품에 복원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흑인 문화 고유의 소재들은 흑인의 정체성을 탐구하고 과거의 정신적 고통을 치유하는 데 긍정적 작용을 한다.

흑인 여성작가들의 소설은 주인공과 그들의 공동체의 심리적인 관계를 강조하면서, 인간존재의 상징으로서 그들의 모계 조상의 이야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의지를 표출한다. 바바라 크리스천(Barbara Christian)은 폴 마셜(Paul Marshall)의 『갈색 소녀, 갈색 사암집』(*Browngirl, Brownstones*), 『선택받은 장소, 영원한 사람들』(*The Chosen Place, The Timeless People*), 엘리스 위커

6) Carolyn Denard, “The Convergence of Feminism and Ethnicity in the Fiction of Toni Morrison,”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e Y. McKay (Boston: G.K. Hall, 1998), pp. 171~172.

7) 서인도제도와 미국의 흑인들 사이에 행해지는 악마숭배·주물숭배·주술 등을 포함하는 관습을 말한다. 아이티의 부두교는 아프리카 서부에서 서인도제도로 팔려 온 흑인 노예들이 퍼뜨렸기 때문에, 초자연에 관한 근본적 관념은 아프리카에서 유래한다. 이 일반적인 테두리 안에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신념과 숭배 양식이 존재하거나, 여기에서는 서인도제도 토착민 특유의 종교에서 오는 요소와 함께, 특히 가톨릭교적 의식의 강한 영향을 엿볼 수 있다.

의 『그레인지 코플랜드의 세 번째 삶』 (*The Third Life of Grange Copeland*), 『메리디안』 (*Meridian*), 그리고 모리슨의 소설들을 ‘엄마’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고 있다. 여기서의 엄마는 혈연관계로 묶여있는 엄마가 아니라, 앞서 살았던 흑인 여성들을 일컫는다. 이들 여성 작가들은 작가 특유의 상상력을 응집해서 엄마를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을 분명히 나타냄으로써 공동체를 부각시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흑인 여성작가들이 나타내는 흑인여성 공동체는 백인문화나 흑인 남성문화와는 다른 특징을 지닌다. 여성 작가들이 재현하는 공동체는 주인공들이 그들의 양식과 신념체계를 받아들임으로써 생성되는 사람들간의 조직으로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공동체는 구성원간의 나이, 위치, 과거에 따라 다양해진다. 따라서 여성 작가들은 작품 안에 다른 흑인 공동체와 공유하고 있는 기본 요소들을 나타내고, 각각의 작품 속에서 이러한 특수한 공동체는 고유한 스타일, 전설, 의식 등을 담아내고 있는 것이다. 또한 흑인 공동체는 백인문화와 달리 그들의 과거를 강조한다. 흑인 공동체의 정의는 반드시 백인문화와의 대립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백인들은 보통 등장인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상징으로서 표현한다. 예컨대 『빌러비드』에서 ‘학교선생’이라는 인물은 단순히 악마같은 농장주로 그려진 것이 아니다. 학교선생은 “정의는 정의되는 존재가 아니라 정의를 내리는 자에게 달려있다.(Definitions belonged to the definers-not the defined)”<sup>8)</sup> 라는 원칙에 근거하여 농장을 경영하는 “과학적 인종차별 시대”가 낳은 전형으로 “관상학자” 또는 “골상학자”로 규정되어질 수 있다. 실제 그는 흑인을 동물로 이미 규정지어 놓고 이러한 규정을 증명하기 위해 흑인노예들의 동물적 특징을 찾기 위해 노력한다.

초기 여성 작가들의 소설에서는 주인공을 고정된 이미지 또는 정형화된 이미지와 다르지 않게 창출하였다. 그러나 인간 내면의 복잡 미묘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면서 이제까지의 틀에 박힌 모습은 파괴되기 시작한다. 마셜의 경우, 소녀가 바라보는 전형적 피해자인 흑인 여성으로서의 엄마를 통해 점차적으로 엄

---

8) Toni Morrison, *Beloved* (New York: Vintage Books, 2004), p. 225. 이후 *Beloved*의 모든 인용은 이 책에 의하며 인용문 말미에 쪽수만 표기할 것임.

마에 대한 이해를 얻는 과정을 제시한다. 모리슨은 『가장 푸른 눈』에서 인물들이 그들의 정형화된 유형을 내재화 하는데서 오는 실패를 드러내고, 이것이 인물의 심리에 미치는 상처를 나타낸다. 아울러 흑인 여성들의 소진된 삶과 그들 아이들과의 비극 사이의 관계를 보여준다.

흑인 작가의 소설은 또한 남성과 여성, 아빠와 엄마의 폭력적인 관계에 주목한다. 흑인 남성과 여성은 서로에게 육체적, 심리적으로 해를 주는 관계에 있다. 『토박이』의 주인공 비거(Bigger)는 베시(Bessie)를 죽이고, 앤 페트리(Ann Petry)의 『거리』(*The Street*)에서 루티(Lutie)는 부츠(Boots)를 살해한다. 그러나 이들은 이런 극적인 사건들이 흑인들의 백인 사회에 대한 억눌린 분노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 말고는 폭력의 본질까지 침투하고 있지는 않다. 대개의 주인공들은 개인적 삶에 인종차별주의가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들은 급격한 사건에 부딪힐 준비나 이들에게 투사된 사건의 원인을 이해할 자세, 나아가 이들의 행동 양식을 바꾸어야 할 필요성을 알지 못한다. 반면에 흑인 여성작가들은 여기서 좀 더 나아가 분노, 걱정 그리고 폭력이 야기되기까지의 과정을 모두 드러내며 인종차별주의가 인물에게 무의식적으로 침투되는 것임에 주목한다.

이러한 여성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 흑인 여성작가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들의 공동체가 흑인 여성들의 내면적 욕구를 담아내지 못한다는 점이다. 보편적 의미의 공동체는 사랑스러운 아내가 가사 일을 하면서 예의 바른 아이들을 양육해 내고, 잘 다림질 된 옷을 입고 가족들과 진수성찬을 먹는 백인 여성들의 일반적인 모습을 내재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정형화된 이미지는 흑인 공동체에서는 환상에 불과할 뿐 성취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공동체는 이 정형화된 모습을 이상으로 제시하면서 표준화 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이상화된 환상은 바로 모리슨의 소설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남부인도 북부인도 아니고, 도시인도 시골 사람도 아닌 인물들은 무엇이 그들의 새로운 삶인지 알아낼 만한 충분한 여유를 갖고 있지 않다. 이런 상황에서 인물들은 그들이 이상화하는 규범과의 편차를 인내할 수 없다. 아름답고 낭만적인 사랑, 사랑과 안전에 대한 조화가 그들 삶에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아야 한다는

서구의 인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러나 흑인 여성작가들은 소설 내에서 이런 갈등과 혼란을 공유하고, 점차로 이상화된 백인의 모습에서 탈피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작품들의 결과가 어떠하든지 흑인 여성성의 탐색 과정은 자아발견의 수단으로 강조된다. 즉 흑인 여성작가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흑인 여성들도 바로 여성이고, 지배적인 백인 여성의 가치로부터 그들 자신을 정의 내리는 과정을 증명하고자 하는 데 있다. 결국 흑인의 역사를 다루고 있는 흑인 여성작가들의 공통점은 인간의 소외나 인권문제를 주제로 다루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개인의 문제를 치유함으로써 공동체 전체의 치유에 이르려는 시도, 다시 말해 이들 작가들이 모두 아프리카계 미국인으로서 자신들의 정체성에 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들 흑인 여성작가 중 토니 모리슨은 예술적, 정치적, 역사적으로 20세기의 가장 중요한 작가 중 한사람으로 꼽힌다. 그녀는 미국 흑인들의 뼈아픈 잊혀진 역사를 작품의 틀로 삼고 이를 복원하고자 하였으며, 그러한 소재를 정교한 문체와 서정적인 어구들로 아름답게 구현하고 있다. 그리고 백인 중심의 미국사회 속에서 흑인 여성 나름의 자아인식을 추구하여 그들의 주체적이고 긍정적인 미래상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모리슨은 흑인 여성들이 더 이상 소외된 존재가 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이러한 그녀의 의지는 작품에서 다양한 인물들의 삶과 의식을 통해 흑인 여성인식의 문제를 여러 각도로 제시하고 있다. 그녀의 작품에 드러나는 모리슨의 의도는 미국사회에서 소외된 존재였던 흑인 여성에게 목소리를 부여함으로써 왜곡된 역사에 묻힌 그들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것으로, 이러한 구체적이고 주체적인 작품성으로 그녀는 1993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 III. 자아의 소멸과 정체성 상실

미국사회에서 노예제도는 사실상 남북전쟁의 종결, 노예해방령의 선포와 함께 막을 내렸다고 이야기 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노예제도라는 치부가 노예해방령으로 해결되었다고 믿고 싶어하는 백인들의 소망과 고통스러운 과거를 굳이 들추기를 꺼리는 흑인 자신들의 심리적 억압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미국은 언제나 새롭게 시작하는 ‘미래의 나라’라고 하는 이데올로기가 자기 역사의 치명적 약점을 쉽사리 드러내지 못하게 하는 역할을 했다. 역사적으로 미국사회의 자기 기만적인 이데올로기로 인해 가장 커다란 희생을 치러왔던 희생자는 다름 아닌 노예로서 착취 받고 억압받아온 흑인집단이다.

노예시절에 흑인들이 겪어야 했던 고통스런 경험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폭력과 가족의 해체였다. 남부의 노예법은 노예 소유주가 노예를 벌주다 죽인다 하더라도 그 행위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흑인 노예들은 농장주의 폭력의 희생물이 되었다. 그러나 노예는 백인을 살해하거나 심지어 백인의 뜻에 반항한 죄, 혹은 반란을 일으킨 죄의 형벌로 사형에 처해졌다.<sup>9)</sup> 또한 남북전쟁에서 패한 남부의 백인들은 자신들의 울분을 푸는 방법으로 비밀 결사를 조직하여 흑인들에 대한 폭력행위를 일삼았다. 이때의 흑인들의 참혹한 모습을 모리슨은 『빌러비드』에서 다음과 같이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

1874년인데, 백인들은 아직도 제멋대로 날뛰고 있었다. 마을 전체의 흑인들이 몰살을 당하기도하고, 켄터키에서만 1년에 87건의 린치 사건이 벌어졌다. 네 명의 유색인 학교가 불에 타 무너지고 말았다. 어른들이 아이들처럼 채찍질을 당했다. 아이들도 어른들처럼 채찍질을 당했다. 흑인 여자들은 한 무리의 선원들에게 강간을 당했다. 사유재산을 박탈당하고, 모가지는 덜컹덜컹 부러졌다. 코끝에 살 냄새가 선하게 풍겨왔다. 살과 뜨거운 피 냄새. 살이 타는 소리는 그렇다치고, 린치의 불길에 타

9) Alan Brinkley, *The Unfinished Nation: A Concis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McGraw-Hill, 1993), p. 292.

들어가는 인간의 피 냄새는 또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틀렸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노스 스타>지에서, 목격자들의 입에서, 글씨가 비뿔비뿔 쓰여진 채 손으로 전달된 편지에서, 악취는 코를 찌르며 풍겨왔다. 읽어 주는 법률기관이라면 어디든 찾아가 들이키는 ‘~인 연유에’라는 말로도 배된 서류와 청원서들에 꼼꼼하게 묘사된 세부사항들에서, 악취는 코를 찌르며 풍겨왔다. (212)

흑인들에게 가해진 폭력이 법적 제재를 당하지 않았던 것은 흑백간의 인종 차별이 교묘하게 법률화<sup>10)</sup>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노예해방과 재건의 시기가 있었다고는 하지만 미국 내의 흑백차별은 쉽게 뿌리 뽑힐 수 없었고, 오늘날처럼 흑인의 인권을 확립하고 평등의 개념을 이룩하기 위해서 많은 흑인들은 투쟁해야 했고 그에 따른 희생을 치러야만 했다.

흑인의 인권이 확립될 때까지의 과정에서 추구했던 것들은 그들이 인간으로서 누려야 했던 당연한 것으로, 노예제도하에서 백인들에게 빼앗겼던 기본적인 권리였다. 이런 기본적인 권리와 문화는 오랫동안 무참히 짓밟혀 왔기 때문에 쉽게 회복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흑인들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와 문화의 회복을 위해 노력했으며, 그 노력은 아프리카계 미국 문학 속에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중에서 모리슨은 흑인들의 정체성 인식의 과정을 그리기 위해 그동안 묻어 두었던 노예제도의 실상을 드러내고 그로 인해 파괴된 흑인 개개인의 고통을 나타내고자 했다. 다시 말해 모리슨은 그녀의 작품에서 흑인들이 인간이 아닌 동물 혹은 물건으로 취급되었던 노예제도하에서 고용주가 아무리 관대하다 할지라도 흑인들에겐 인간성이나 정체성의 개념이 존재할 수 없음을 잘 나타내고 있다.

『빌러비드』에서 폴 디(Paul D)는 학교선생(Schoolteacher)이 온 후 겪게 되는 치욕과 갈등 속에서 자신들을 노예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으로 믿게 했던 스위트 홈(Sweet Home)이 ‘환상’이었음을 깨닫는다. 즉 학교선생이 오기 전의

---

10) 이러한 대표적인 예로 Jim Crow Law를 들 수 있다. 1896년 흑백 차별교육에 대하여 “분리하되 평등하면” 위헌이 아니라는 대법원의 판결은 인종분리 학교를 합법화 시켰고, 이는 1898년 연방대법원이 흑인의 투표권 박탈을 인정함으로써 흑인에 대한 차별을 법률화 시켰다.

스위트 홈은 가아너(Garner) 부부의 관대함에 의해 흑인노예 자신들이 노예라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 채 자유롭다고까지 생각하게 만들어 준 장소이다. 노예주로부터 인간 대접을 받고 있다는 그들의 믿음은 그들이 정체성을 가진 ‘사람’으로 존재한다고 착각하도록 만들었다. 따라서 다른 농장의 흑인노예와 달리 시이드는 ‘스위트 홈’에서 한 남자(할리)와 6년이라는 시간동안 안락한 가정을 일궈올 수 있었고, 이런 생활은 당연하다고 여기게 된다. 그러나 “나하고 할리(Halle)하고 스위트 홈 남자들이 다 같이 앉아서 뭔가 특별한 음식을 먹기라도 한다면, 하고 말이야.”(70)라고 생각하고 있던 시이드는 자신의 결혼식 이야기를 가아너 부인에게 꺼내면서 비로소 자신의 위치를 다시 깨닫게 된다.

할리가 청혼을 했을 때 시이드는 행복하게 동의했지만, 그 다음 단계를 몰라 일을 진척할 수가 없었다. 예식이라도 올려야 하는 게 아닐까? 목사님이랑, 춤도 추고, 파티도 하고, 뭔가 있어야 할 텐데. 여자들이라고는 그녀와 가아너 부인뿐이었기에, 그녀는 부인에게 여쭙보기로 결심했다.

“할리와 저는 결혼하고 싶어요, 가아너 부인.” “그렇다면?”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가아너 씨한테 할리가 벌써 말했다더구나. 아기를 가졌니?”

“아니요, 부인.”

“곧 가지게 되겠지. 너도 알지, 그렇지?”

“예, 부인.”

“할리는 착한 남자지. 시이드. 너한테 잘해줄 거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하고 싶은데요.”

“방금 그렇게 말했잖니. 그리고 나는 괜찮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나요?”

가아너 부인은 요리용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살짝 웃음을 터뜨리면서 시이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넌 참 귀여운 애야.”

하지만 더 이상은 아무 말도 없었다. (31)

스위트 홈 밖의 흑인들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지만 스위트 홈의 생활에 젖어있던 시이드는 자신은 다른 흑인들과 다르다고 생각했기에 적어도 간소한 결혼식이라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스위트 홈에서도 역시 노예제는 존재하고 있었고 가아너 부부가 만들어 놓은 스위트 홈에서의 흑인의 자유란 환상에 불과한 것이었다.

폴 디는 가아너가 키워 낸 남자들을 학교선생이 강압적으로 어린아이로 길들였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그들을 달아나게 한 직접적인 이유라고 오랫동안 생각해왔다. 그는 후에 노예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느낀 후, 비록 자신들이 인간적으로 취급되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스위트 홈 안에서만 해당되는 것이었고, 그것도 주인이 허락할 때만 가능했음을 깨닫는다. 그렇기에 그는 흑인들의 운명이 백인의 손에 의해 좌우되는 것이며, 이제껏 자신들은 스위트 홈이라는 그럴싸한 환상 속에 갇혀 살아왔음을 깨닫게 된다. 결국 폴 디는 가아너의 죽음으로 자신들의 삶이 산산조각 찢겨지는 것을 통해 노예제도의 실상을 이해하게 된다.

모리슨은 『빌러비드』에서 백인들은 다 잔인하고 흑인들은 다 훌륭하다는 식의 이분법적 논리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다. 그녀는 작품에서 공감 갈 수 있는 친절한 백인 인물들을 만들어 낸다. 그러나 그들의 관대한 성격이 노예들의 판단을 흐리게 할 뿐만 아니라 사물을 보는 시각을 복잡하게 만드는 작용을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한다. 그 예로 가아너는 생전에 자기 노예들을 인간적으로 대해 ‘남자(man)’라고 칭하고 그들에게 충을 소유하도록 허락할 정도로 관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그리고 할리가 5년 동안 안식일을 포기한 품삯으로 자기 어머니 베이비 석스(Baby Suggs)의 자유를 살 수 있도록 허용했으며 또 베이비 석스가 신시내티에 정착하도록 도움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다른 농장주보다 관대하게 흑인을 다루는 가아너씨도 노예주였기 때문에 그에 대한 베이비 석스의 감정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일관되지 않는다. 베이비 석스가 자유의 몸이 되어 풀려날 때의 대화 속에는 감사와 분노가 서로 뒤섞인 그녀의 묘한 감정이 잘 드러나 있다.



“뭐든 필요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말씀해주세요.” 누이가 말했다.

“우리는 노예제에 찬성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아너식의 노예제라 해도 말이지요.”

“이 사람들에게 말 좀 해줘, 제니. 우리 집보다 더 좋은 데서 지내 본 적 있어?”

“아닙니다, 주인님. 한 번도요.”

“스위트 홈에는 얼마나 오래 있었지?”

“십 년일 겁니다.”

“배가 고팠던 적 있었나?”

“아닙니다, 주인님.”

“추웠나?”

“아닙니다, 주인님.”

“누가 건드린 적 있었나?”

“아닙니다, 주인님.”

“내가 할리가 너를 사도록 허락해줬지, 아니니?”

“예, 주인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답니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으로 베이비 석스는 생각했다. 하지만 당신은 내 아들을 데리고 있고 저는 이미 만신창이가 되었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 가고 난 뒤에도 주인님은 한참 동안, 내 몸값을 갚겠다고 내 아들을 여기저기 밖에서 빌려주겠지요. (171~172)

이런 백인들의 태도 때문에 폴 디는 특히나 혼란을 겪는다. 흑인들을 인간으로 대접해 준 가아너도 베이비 석스가 자유의 몸이 되었을 때 자유인으로서 그녀의 이름이 이름답지 못하고 우스꽝스럽다며 백인들의 매매계약서에 적은대로 제니 위트로우(Jenny Witlow)라고 부르기를 고집하고, 또 자기 농장의 노예들의 이름을 부르기 편하게 알파벳순(Paul A, Paul D, Paul F)으로 지었다는 사실은 그 또한 백인 주인으로서의 힘을 구사했음을 짐작케 한다. 즉 가아너는 노예들의 정체성을 부인하고 익명의 집단이 될 것을 그들에게 요구한 것이다. 이처럼 힘을 가진 주인과 그 힘의 지배를 받는 자가 있는 상황에서는 흑인들이 진정으로 그들의 정체성을 인정받았다고 볼 수 없다. 가아너가 보여준 노예에

대한 관대함도 흑인들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인간성까지 말살하는 노예제도 안에서 행해진 것으로, 이는 학교선생이 흑인들을 동물이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음을 보여준다.

스위트 홈의 흑인노예들이 자신이 인간이 아닌 생산도구로서의 값어치를 깨닫게 된 것은 학교선생이 스위트 홈의 새 주인으로 오면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학교선생이 자신들을 사고 팔 수 있는 동물로 정의내리고 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의 시작은 학교선생이 자신들에게 던지는 질문을 통해 그리고 무언가를 열심히 적던 공책이 동물의 특성을 기록하기 위한 것임을 알았을 때 시작되었다. 시이드는 스스로 동물 취급을 당한 경험을 통해 흑인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다.

학교선생은 학생들한테 말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

“너는 어느 쪽을 쓰고 있니?”

그러자 어떤 남자애가 말하더구나.

“시이드요.”라고.

그래서 발길을 멈췄단다. 내 이름이 들리길래 말이야. 그리고 나서 뒷들 하는지 볼 수 있는 데로 몇 발짝 걸어갔어. 학교선생이 한 손을 뒷짐 지고 한 학생 위로 몸을 굽히고 있더구나. 손가락을 두세 번 훑더니 몇 장을 넘겼어. 천천히. 나는 돌아서서 모슬린 천을 찾으러 가던 길을 가려 했지만, 그때 이런 소리를 들었어.

“아니, 아니, 그게 아니야. 왼쪽에는 그녀의 인간적 특징을 적으라고 하지 않았니. 동물적 특징은 오른쪽에 적고. 줄을 긋는 걸 잊지 말아라.”

나는 다시 뒷걸음을 치기 시작했어. 뒤에 뭐가 있는지 보지도 않았지. 그냥 발을 들어서 뒤로, 뒤로 밀어 디뎠을 뿐. 나무에 부딪혔을 때, 머리가 따끔거리더군. 개 한 마리가 마당에서 냄비를 핥고 있었어. 나는 재빨리 포도나무 정자로 달려갔지만, 모슬린 천은 끝내 갖고 오지 못했어. 파리들이 앞다리를 비비며, 네 얼굴 여기저기 자리를 잡고 앉아 있더구나. 머리가 끔찍하게 가려웠어. (228)

동물성의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자신을 측정하고 자신을 동물로 분류하고자 노력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은 시이드는 심리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게 되고 “학교선생이 왜 내 치수를 잴는지 알게 된 다음날, 쉽게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230)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학교선생이 가르치던 건 우리가 결코 배울 수 없는 것이었지 . . . 학교선생은 그 줄자로 내 머리를 칭칭 감고, 코 너비를 재고, 엉덩이 둘레를 잴지. 내 이빨마다 숫자를 매겼어.”(226)라고 시이드가 회상하는 장면을 통해 그녀는 그동안 자신이 부인하고 인정하고 싶지 않아 오히려 착각을 유도하고 있던 ‘노예라는 존재’의 그 가치적 존재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

인간성이 파괴되는 고통은 시이드뿐만 아니라 스위트 홈의 모든 흑인노예들이 겪어야 했던 것이었지만, 시이드에게는 그들과 다른 또 하나의 고통이 있었다. 당시의 노예제도는 값싼 비용으로 최대한의 노동력을 얻기 위해 노예를 ‘상품’과 ‘일하는 가축’으로 전락시켰다. 상품화된 노예의 삶은 노예주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 남자나 아이들을 다른 농장으로 팔아버림으로써 노예가족이 언제든지 해체될 수 있었다. 따라서 시이드의 진정한 고통은 자신을 동물적 특성으로 분류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재부정 자체라기보다 학교선생이 자신의 아이들을 언제든지 팔 수 있다는 사실과 자신의 아이들도 자기처럼 동물로 취급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녀에게 있어 자식들이 동물로 취급된다는 것은 더 큰 고통이었기에, 시이드는 자신의 아이들을 동물적 특성으로 분류하여 종이 한 쪽에 나누어 적도록 시키는 일을 막고자 탈출을 결심하게 된다.

특히 학교선생의 조카들이 자신의 젖을 강탈한 사건은 시이드에게 자신의 인간성이 말살되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을 주었고, 엄마로서 느끼고 있던 그녀의 정체성마저 파괴시켰다. 노예제도는 흑인 아버지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기 때문에 모유로 상징되는 모성은 흑인 여성이 물건이 아닌 인간으로 존재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즉 모성애와 양육을 상징<sup>11)</sup>하는 “젖”을 빼앗겼다

---

11) Koo Eunsook, *The Politics of Race and Gender: Mothers and Daughters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Alice Walker, Maxine Hong Kingston, and Joy Kogawa*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1993), p. 22.

는 것은 자기의 아이에게 먹일 식량을 강탈당한 것은 물론 엄마로서의 역할을 빼앗긴 것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시이드는 자기의 아이들에게 먹일 젖을 빼앗기지 않고, 엄마로서의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 현실의 구속으로부터 탈출을 결심했던 것이다. 아이들에게 먹일 젖을 백인이 강탈해 간 것에 대한 충격은 폴 디와의 대화에서 더욱 강조된다.

“당신한테 쇠가죽 채찍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내 젖을 빼앗아갔어.”

“임신한 당신을 때렸단 말이야?”

“그리고 내 젖을 빼앗아갔어.” (20)

임신한 상태인데도 채찍질을 했냐는 폴 디의 질문에 시이드는 그들이 자신의 젖을 강탈했다는 말만 되풀이한다. 폴 디에게는 만삭인 시이드에게 채찍질을 한 행위가 중요하지만 시이드에게는 자신의 가장 소중한 자식들에게 주어야 할 젖을 강탈당했다는 것이 견딜 수 없는 것이었다. 따라서 베이비 석스가 있는 곳으로 탈출할 때 자신의 몸이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그녀가 생각한 것은 자기 아이에게 젖을 줄 사람은 자기밖에 없으며, 젖을 주기 위해 가야만 한다는 것이었다.

시이드는 자신을 동물로 여기는 백인들로부터 노예로서의 인생을 거부하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고통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을 완강히 거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탈출을 선택한다. 하지만 그 탈출마저 백인들 앞에 좌절되었을 때 그녀는 자신은 물론 아이들까지 모두 살해하고자 했던 것이다. 즉 자기의 아이들이 자신처럼 동물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면서 아이들의 인간성을 지키고자 했던 그녀의 모성애가 결국 빌러비드의 살해라는 극단적인 모습으로 구현된 것이다. 그녀는 자신의 행동이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곧 노예라는 운명의 굴레를 벗게 했다고 생각한다.

그냥 괴롭히고 죽이고 사지를 절단한 게 아니라 더럽혔다. 너무나 끔

찍하게 더럽혀져서 다시는 자신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버렸다. 너무나 끔찍하게 더럽혀져서 자기가 누구였는지도 다 잊어버리고 다시는 생각해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렸다. 그리고 그녀는 물론 다른 사람들도 다 견디고 살아남았지만, 그녀는 자기 자식들만큼은 절대 그런 짓을 당하게 하고 싶지 않았다. 그녀에게 최고로 좋은 건, 바로 아이들이었다. 백인들은 그녀 자신을 더럽힐 수는 있었지만, 하지만 최고의 것, 아름답고 마술 같은 최고의 존재, 그녀가 지닌 깨끗한 한 조각의 자아를 더럽힐 수는 없었다. (295~296)

폴 디는 그녀가 한 행동이 사랑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며, 분명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가능한 어떤 방법이 있을 수 있는가에 대한 시이드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못한다. 이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시이드의 선택에 대한 동의라기보다는 사랑의 이름으로도 자식살해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그에 대한 해결방안은 노예제도를 살아온 흑인들이 풀어야 할 숙제로 작가가 남겨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시이드에게 “당신은 두 발 달린 사람이잖아, 시이드. 네 발 달린 짐승이 아니잖아.”(194)라고 말한 폴 디의 말 속에는 그녀의 자식살해에 대한 비난이 숨겨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물로 취급되는 운명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그리고 자기 자식들 역시 동물로 취급되는 것을 막기 위해 탈출한 그녀가 직접 자식을 살해한 것은 동물적인 행위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결국 모성애라는 이름으로 행한 비인간적인 행위는 오히려 자식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결과를 낳았을 뿐 아니라, 자신마저도 또 다시 동물로서 취급되게 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는 자신의 동물적 특성을 공책의 한 쪽 면에 적도록 지시하는 교사의 명령과 같은 말을 자신의 연인인 폴 디에게 듣게 되고, 이로써 그녀는 또 다시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정체성이 동물과 비교되는 아픔을 겪게 된다.

이렇게 시이드가 바뀐 농장주인인 학교선생으로부터 모욕과 학대를 받는 동안 스위트 홈의 다른 남자 노예들도 이전과는 다른 비참함을 겪게 된다. 시이드의 남편 할리는 그의 아내가 농락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정신이상자가 되고, 어떤 이는 팔려가고, 또 어떤 이는 불에 타 죽는다.

폴 디 또한 탈출을 시도하다 실패하여 다시 잡혀 왔을 때, 그는 손에 쇠고랑이 채워지고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되는 수난을 겪는다. 재갈은 그 자체가 인간성을 박탈함과 동시에 인간이 동물로 취급됨을 의미하며, 이러한 영향은 노예들에게서 모든 인간적인 특질을 앗아가 버리게 된다. 재갈을 한 번 물었던 사람에게서 그 이전에 없었던 야만성을 갖게 된다는 시이드의 말은 재갈이 그들의 인간성을 철저히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폴 디에게 재갈의 의미를 알려준 것은 어느 누구도 아닌 물통 위에 앉아있던, 자신이 앞에서 꺼내주어 비로소 이 세상에 나올 수 있었던 미스터(Mister)라는 이름의 수탉이었다.

미스터, 그 녀석은 너무나 뭐랄까 . . . 자유로워 보였어. 나보다 훨씬 나아보였지. 강인하고, 더 터프하고. 그 시원찮은 자식은 제 힘으로 알을 깨고 나올 힘도 없었는데, 그 녀석은 그래도 왕이었고 . . . 나는 . . . 미스터는 생긴 대로 살도록 허락받고 또 그렇게 살았던 거야. 하지만 나는 나 자신으로 존재하고 살아가도록 허락받지 못했지. 그 녀석을 잡아서 요리를 해먹어도, 결국 미스터라는 이름의 수탉을 먹는 거지만. 나는 죽든 살든, 다시는 폴 디가 될 수 없었어. 학교선생이 나를 속속들이 바꿔버린 거야. 나는 뭔가 다른 존재였고, 그건 햇빛을 받으며 물통 위에 앉아 있는 닭 한 마리보다도 못했어. (86)

마당에서 유유자적하며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미스터를 본 순간, 자신이 입에 채워진 재갈은 그에게 굴욕감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한다. 왜냐하면 그때서야 그는 “폴 디”라는 이름을 가진 자신은 이제까지 인간으로 존재해 왔던 것이 아니라 한 마리의 닭보다도 못한 짐승 이하의 상태에서 생활해 왔음을 비로소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즉 학교선생에 의해 운영된 스위트 홈은 정체성 자체를 모르고 지내온 흑인들에게 노예로서 그들의 위치가 어떤 것인가를 철저히 깨닫게 하는 고통스런 기회였던 것이다.

폴 디는 자신을 ‘닭보다도 못한 존재(Something was less than a chicken)’로 느끼지만 조지아주 알프레드(Alfred) 수용소에서 그의 정체성은 더욱 무참

하게 파괴된다. 흑인들이 한 무리의 짐승처럼 밭목에 쇠사슬을 감고 있어야 했고, 그들의 숙소라고 불리는 곳은 짐승우리처럼 땅속에 파놓은 무덤과도 같은 곳이었다. 폴 디는 그 구덩이로 밀어 넣어졌을 때 자신의 손이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을 통제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짐승처럼 취급되는 자신의 처지에서 한 인간으로서의 독립된 자아 대신 온전히 백인의 소유물로서만 존재함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분노와 자신에 대한 증오가 손가락의 떨림으로 나타났던 것이다.

하지만 폴 디는 이런 상처를 더 이상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나약한 모습을 인정하지 않는다. 자신은 스위트 홈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고 지옥과도 같은 알프레드 수용소에서도 탈출했기 때문에 여전히 강한 의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일이 있은 후, 폴 디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먹고 자는 기본적인 것 외에는 어떤 것도 생각하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노예제도하에서 시이드와 폴 디로 대변되는 흑인들의 인간성 말살과 정체성 파괴는 나아가 흑인 노예들의 가족해체로 이어졌다. 1808년 노예반입이 전면적으로 금지된 이후 남부농장에서 노예의 보급은 주로 기존의 노예들의 재생산을 통하여 이루어졌다.<sup>12)</sup> 합법적으로 흑인노예를 살 수 없게 된 백인농장주들은 흑인 노예여성의 재생산에 의지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많은 흑인 여성들은 그들의 희생양이 되어야만 했다. 이는 여덟 명의 자식을 둔 베이비 석스와 시이드의 경우에서 확실하게 드러난다. 자유의 몸이 된 베이비 석스를 대신해서 온 시이드에게 스위트 홈은 ‘노예의 재생산’이라는 목적을 안긴다. 여자 노예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임무 중 하나가 바로 아이의 생산이다. 시이드 역시 14살에 결혼하여 19살의 나이에 벌써 네 아이의 어머니가 되었다. 출산과 가족관계형성과는 별개의 것으로 여덟 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모두 뿔뿔이 흩어져 그 숫자만을 기억할 수 있다는 베이비 석스의 고백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 당시 노예제도하에서의 여성이란 재생산의 의무를 지닌 존재일 뿐 여성으로서, 어머니

12) 최재구, 「토니 모리슨 소설에 나타난 ‘이중의식’ - 분열에서 공존으로」, 『현대영미소설』 제7권 1호, 2000: 184.

로서의 역할은 경험할 수 없는 것이었다. 모리슨의 말처럼 흑인 노예 여성들은 단지 “비용도 들지 않고 자가 증식하는 재산(Property that reproduced itself without cost)”(269)으로만 여겨졌다.

이런 식으로 가족이 파괴되는 삶의 형태 속에서 흑인들에게 가족을 이룬다거나 자유롭게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노예가 다른 농장으로 팔려 가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노예제도하에서는 부모와 자식간의 관계가 근본적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시이드의 엄마가 일했던 대농장과 같은 곳에서는 자식과 떨어져서 지내야만 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자식과의 이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들판에서 일하는 모습 몇 번밖에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쪽물을 들 일 때 한 번 봤지. 아침에 눈을 뜨면, 벌써 줄을 서서 일하고 계셨어. 달빛이 휘영청 밝으면 달빛을 받고 일을 하셨지. 일요일이면 나무토막처럼 주무셨어. 아마 내게 젖을 물린 건 2~3주쯤일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으니까. 그러고 나서 다시 논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젖 물리는 일을 하는 다른 여자의 젖을 빨았어.” (72)

대농장에서 일하던 시이드의 엄마는 고된 노동으로 인한 육체의 피로, 그리고 농장과 그녀가 머물던 숙소와의 거리로 시이드에게 젖을 줄 수 없었고, 머리로 손질해 줄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함께 살았다고 하지만 시이드는 엄마의 존재를 거의 느끼지 못한 채 살아야 했고, 이러한 대농장의 생활은 결국 엄마의 부재를 뜻하는 것과 같았다. 따라서 시이드에게 어머니란 존재는 구체적인 모습이나 말투가 아니라 그녀의 가슴에 새겨져 있던 “기호(mark)”로서 기억될 뿐이었다. 이러한 기호는 인간이 상품으로 격하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상징이었다.

그녀는 나를 안아 올려 오두막 뒤로 데려갔었지. 그곳에서 자기 드레스 앞자락을 열어 젖히고 한쪽 젖을 들어 올려 그 밑을 가리켰지. 앙상한 갈비뼈 위에 원이 쳐진 십자의 문신이 있었어. 그 문신이 엄마라는



표시라고 했어. “표시가 있는 사람은 이제는 엄마 혼자뿐이란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죽었어. 나의 신상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가 나의 얼굴을 분간할 수 없게 되었다 해도 이 표시로 네 엄마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야.” (72)

어머니란 존재가 있음에도 겪었던 상실감은 시이드에게 가장 힘들었던 기억인데 나중에 그녀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서도 그 상실감이 대물림된다는 사실을 시이드는 감내하기 어려웠다. 그래서 시이드는 그 상실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고 보다 분명한 자아를 찾기 위해 어머니라는 역할에 더욱 열중하게 된다.

시이드는 어머니의 젖이 아닌 다른 여자의 젖이라 하더라도 그것마저 충분히 먹고 자라지 못했다. 왜냐하면 아기들의 젖먹이에도 흑백의 구분이 엄격하게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백인의 아기가 젖을 먹고 난 후에야 비로소 남아있는 젖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것이다. 따라서 어린 시절 엄마의 부재와 젖에 대한 갈증은 그녀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들에 대한 사랑과 그 아이들에게 젖을 주고자 하는 집념을 갖게 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녀의 경우는 자식들이 한 흑인 남자에게서 얻어진 존재였고, 그들에게는 가족이라는 개념이 있었기 때문이다.

흑인들이 안정적인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것에는 또 한가지 이유가 있다. 흑인 여성들이 겪어야 했던 가장 큰 고통은 그들이 백인 남성들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되었다는 사실이다. 흑인 여성들은 모든 흑인노예에게 공통적으로 행해지는 부당한 처사와 굴욕과 같은 육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여성이라는 그들만의 특수성이 부가되어 백인 주인들에 의해 성적 착취를 당해야 했던 것이다. 흑인 여성들의 이런 고통은 그들로 하여금 부친부재의 자식들을 양육할 수밖에 없게 하였고, 이는 궁극적으로 자식살해라는 범죄를 피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해 주었다. 흑인 여성들은 백인들에게서 난 자식들을 어떤 형태로든 죽게끔 만들었기 때문이다. 흑인 여성들은 자신이 인간이 아닌 노리개감으로 취급되었기 때문에 그 산물로 얻어진 아이들도 인간으로 여길 수 없었던 것이다. 시이드의 엄마도 백인들에게서 난 자식들에게 이름도 붙여주지 않고 버렸으며, 자신이

두 팔로 안았던 흑인 남자에게서 난 시이드에게만 그 남자의 이름을 붙여주었던 것이다. 엘라(Ella)의 경우, 그녀는 성장기 시절에 백인 농장주와 그의 아들에게 성적 착취를 당했다. 그것은 그녀에게 성에 대한 혐오감을 남겼을 뿐 아니라, 시이드의 엄마처럼 그녀 역시 백인에게서 난 자식에게 5일 동안 젖을 물리지 않음으로써 죽게끔 만들었던 것이다. 이처럼 흑인들은 모두 아버지가 분명치 않거나 분명하다고 해도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없었으며, 아버지가 백인일 경우엔 어머니가 아이들의 존재를 인정할 수 없었다. 이러한 이유로 흑인들은 온전한 가족관계를 이룰 수가 없었다.

이처럼 노예제도는 흑인들 개개인의 인간성과 정체성을 파괴했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가족관계도 완벽하게 파괴했던 것이다. 가족의 해체와 자식을 사랑하고자 하는 어머니의 권리에 대한 부정은 아마도 노예제도하에서 흑인들이 겪어야했던 가장 끔찍한 경험<sup>13)</sup>일 것이다. 흑인들이 노예제도하에서 겪었던 인간성의 말살은 한 개체로서의 존재의미를 상실하게 되었고, 그들의 정체성 파괴는 공동체의 기본단위인 가족마저 해체시켰다. 비록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되었다 할지라도 노예제도에서의 이런 쓰라린 경험은 그들의 남아있는 삶까지도 지배하고 있었던 것이다.

---

13) Barbara Hill Rigney, *The Voice of Toni Morrison* (Columbus: Ohio State UP, 1991), p. 68.

### Ⅲ. 정체성 회복의 과정

#### 1. 모성애를 통한 자아실현의 한계

아프리카로부터 끌려 온 자신의 뿌리도 알 수 없는 흑인들은 노예제도에서 부계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를 중심으로 한 가정을 이룰 수밖에 없었다. 그러므로 흑인 어머니에서 딸로 이어지는 모계 중심의 결속에서 모성은 흑인 역사에 있어 큰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흑인 여성뿐만 아니라 흑인 사회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유일한 단서가 된다. 크리스찬 바바라(Christian Barbara)는 『흑인 페미니즘 비평』 (*Black Feminist Criticism*)에서 모성이라는 개념이 흑인의 정체성과 본질의 문제에 무관하지 않으며, 자유를 얻기 위한 역사적 과정 속에서 흑인 어머니들의 모성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고 정체성을 탐색하기 위한 핵심적인 개념이라고 밝히고 있다.<sup>14)</sup>

모리슨 또한 『빌러비드』를 통해 노예제도라는 비극적인 역사적 현실에서도 흑인 여성들의 강인한 힘이 존재하였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그것의 원천은 흑인 여성들의 모성애라는 사실을 강조한다. 노예제도 아래에서 허용되기 어려웠던 이들의 모성은 흑인들의 존재와 자아 정체성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힘이 었다.

흑인 여성의 출산은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가 무시되는 억압 속에서 노예주의 재산 증식을 위해 흑인 여성에게 부여된 의무이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의 인격체로 인정되지 않는 노예제도 아래에서 흑인 여성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자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었다. 이러한 흑인 여성의 자아와 모성에 대해 모리슨은 달링(Darling)과의 인터뷰에서 이 작품의 중요한 주제는 자아확립과 모성간의 갈등이며, 이 문제를 다루는 데에는 노예제도가 가장 알맞은 배경이라고 설명한다.<sup>15)</sup> 또한 여기서 모리슨은 시이드의

14) Barbara Christian,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 on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p. 213.

자식들에 대한 모성과 자기 자신의 자아에 대한 사랑이 동시에 수반되어야 하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노예제도에서는 모성과 자아는 불가분의 관계로 자신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수단이었지만, 노예해방 이후에 지나친 모성의 집착은 자아를 파괴하는 방편으로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빌러비드와 시이드의 관계는 여성의 개체화와 자아의식을 파괴할 수 있는 모성의 어두운 측면을 드러낼 수도 있다.<sup>16)</sup> 이것은 시이드가 노예제도에서 박탈당한 어머니의 역할에 집착하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나타난다.

『빌러비드』에 등장하는 시이드, 그녀의 생모, 보모 낸(Nan), 시어머니 베이비 석스 등은 모두 강인한 모성애를 통해 자아인식을 획득한 여성들로 흑인 여성들의 삶의 역사를 말해준다. 시이드의 생모는 노예선을 타고 아메리카로 끌려오는 중에 백인선원들에게 여러 번 성폭행을 당하는 데 그것으로 인해 생긴 아이들은 단 한 번도 안아주지 않은 채 그냥 바다에 던져 버리고, 유일하게 흑인 남성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시이드만을 그녀의 아이로 인정하며 직접 이름까지 지어준다. 후에 생모는 탈출을 시도하다 붙잡혀 교수형을 당하게 되며, 이런 단절된 모녀관계는 어린 시이드에게 극단적 모성을 가지게 하는 근거를 제공한다.

생모는 대농장의 고된 노동으로 시이드와 함께 생활할 수 없었으며 어린 시이드는 보모인 낸에 의해 키워진다. 낸은 시이드에게 흑인 고유의 언어로 말하고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시이드는 그녀의 말을 구체적으로 기억할 수 없지만 그 말속에 잠재해 있는 흑인 전통의 정신은 그녀의 무의식 속에 자리하게 된다.

낸이 해준 이야기들을 시이드는 까맣게 잊었고, 무슨 말로 어떻게 해주었는지도 잊어버렸다. 어머니가 말하던 언어였을 텐데, 그 말은 영영 돌아오지 못하리라. 하지만 그 의미는 - 그건 항상 사라지지 않고 남아

15) Marha Darling, "In the Realm of Responsibility,"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Starkville: Mississippi UP, 1994), pp. 246~254.

16) Stephanie A. Demetrakopoulos, "Maternal Bonds as Devourers of Women's Individuation in Toni Morrison's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26(1992): 51~59.

있었다. 축축한 흰 이불 호청을 가슴 앞에 꼭 붙잡고, 그녀는 더 이상  
해독할 수 없는 암호들로부터 의미를 골라내려고 애를 썼다. (74)

자신의 정체성을 강하게 나타낸 또 다른 인물은 시어머니 베이비 석스이다. 베이비 석스는 그녀의 아들 할리가 주말에도 일을 한 노동의 대가로 60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되는 여성이다. 그녀는 오랜 세월을 노예로 지냈기 때문에 자유의 몸이 된 후에도 자아인식에 대해 혼란을 겪게 되지만, 이름을 통해 그녀가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고자 노력했음을 알 수 있다. 노예로서 주어진 이름인 제니 워트로우를 거부하고 남편의 이름을 붙인 석스(Suggs)와 그가 그녀를 베이비(Baby)라고 불렀는데, 이 두 단어를 자신의 이름으로 사용한다. 노예이름을 버리고 자신의 이름을 가진 그녀의 행동은, 무의식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자 하는 그녀의 의식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들처럼 시이드도 강인한 모성을 가진 여성으로 백인들로부터 목숨을 건탈출 중에 강가에서 둘째 딸 덴버를 낳는다. 그리고 신시내티에서 28일 동안의 짧은 시간을 보낸 후, 그녀를 쫓아온 학교선생과 그 일행들에게 다시 붙잡히게 되었을 때 자신과 같은 노예생활을 물려줄 수 없기에 첫째 딸 빌러비드를 살해하게 된다.

어머니와 딸 관계로 대표되는 시이드와 덴버, 시이드와 빌러비드의 관계 속에서 흑인 여성의 모성은 그들의 자아인식과 흑인 여성의 정체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친다. 사랑하는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왜곡된 모성애라는 부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음에도 그들의 원천적 힘은 모성애에서 비롯되었다.

가아너 부부에 의해 운영되는 스위트 홈에서 시이드는 베이비 석스의 아들인 할리와 결혼하여 노예로서는 비교적 안정된 가정을 이루고 살았다. 그러나 가아너씨의 갑작스런 죽음으로 학교선생이 농장의 경영을 맡게 되는데, 이때부터 스위트 홈의 분위기는 이전과 다르게 변한다. 학교선생은 노예들을 동물처럼 가혹하게 다루었으며, 시이드는 가정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스위트 홈을 탈출하려는 계획을 세운다. 두 아들과 젓먹이 딸을 오하이오 강 너머 베이비 석스가 살고 있는 신시내티로 먼저 보내고 가려는 순간, 학교선생의 두 조카에

의해 젖을 빼앗기고, 학교선생이 지켜보는 가운데 채찍으로 맞는다. 이 사건으로 인해 시이드는 심한 충격과 딸에게 주어야 하는 젖을 빼앗겼다는 것에 분노를 느끼며 임신한 몸으로 탈출을 감행한다. 이때 시이드가 느낀 것은 자신의 자아에 대한 박탈감이다. 이것은 여성만이 느낄 수 있는 상실감으로 폴 디 조차 이를 이해하지 못한다. 모성이 여자 혹은 노예의 존재의미를 갖게 하는 유일한 수단이었기 때문에 시이드의 젖 강탈사건은 그녀에게 있어서 끔찍하고 치욕적인 사건인 것이다. 폴 디와의 대화를 통해 그녀가 얼마나 모성에 집착하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이랑 헤어졌을 때, 그 남자들이 들이닥쳐서 내 젖을 빼앗아 갔어. 애초에 그게 목적이었던 거야. 나를 바닥에다 꿈쩍달짝 못하게 누르고는 젖을 빼앗아갔어. 가아너 부인한테 그 얘기를 했지. 종양 때문에 말도 못했지만 부인 눈에 눈물이 고이더군. 그 빌어먹을 사내들이 내가 말했다는 걸 알았나봐. 학교선생이 한 놈을 시켜 내 등을 가르게 만들었고, 상처가 아물면서 나무가 났어. 아직도 거기 자라고 있어.”

“당신한테 쇠가죽 채찍을 썼단 말이야?”

“그리고 내 젖을 빼앗아갔어.”

“임신한 당신을 때렸단 말이야?”

“그리고 내 젖을 빼앗아갔다니깐.” (19~20)

폴 디는 시이드가 매질을 당한 것에 놀라며 물어보지만 시이드는 아이들에게 줄 젖을 빼앗겼다는 사실만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있다. 즉 젖이 상징하는 모성은 시이드에게 있어 유일하게 자신의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수단이며, 딸아이의 생명수이기 때문에 시이드는 필사적으로 이것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므로 학교선생의 두 조카에게 빼앗긴 젖은 딸아이의 생명을 끊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시이드는 딸아이를 죽인 자신의 행동이 자기가 알고 있는, 죽음보다도 못한 노예생활에서 자식을 구하는 유일한 방법이었으며 사랑의 일면이라고 확신한다.

이처럼 시이드가 이 사건 후에 느꼈던 상실감은 그녀의 어머니가 들에서 일

하느라 돌보지 못해 보모인 낸이 백인 아이들에게 다 먹이고 난 후의 젖을 시이드에게 주던 장면을 회상하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엄마는 논일을 했기 때문에, 낸은 백인 아기들은 물론이고 나까지 젖을 먹여야 했지요. 작은 백인 아기가 먼저 젖을 빨고 나서, 저는 남은 걸 먹어야 했답니다. 아니, 아예 못 먹는 일도 허다했어요. 내 거라 할 수 있는 젖이 없었던 거죠. 자기 젖이 없다는 게 어떤 건지 저는 알아요. 젖을 먹으려고 싸우고 고래고래 고함을 쳐도, 돌아오는 건 쥐꼬리만 하죠. (236)

흑인 여성에게 젖의 의미는 양육, 보호, 생명 그 자체이다. 따라서 시이드는 자신이 느낀 자아 상실감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이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어 목숨을 건 탈출을 감행한 것이다. 그녀의 남편인 할리가 약속장소에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아이에게 젖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다는 진한 모성애로 만삭의 몸으로 홀로 탈출을 시도한다.

탈출 도중, 백인 소녀 에이미 덴버(Amy Denver)의 도움으로 6개월 된 덴버를 보트 안에서 출산하고 신시내티로 온 시이드는 28일간의 달콤한 자유생활을 누리던 중, 학교선생과 노예 사냥꾼이 나타나자 진한 사랑의 방편으로 딸을 살해한다. 죽음이 노예로서 삶보다, 특히 여자 노예로서의 삶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한 시이드는 그런 극단적인 방법만이 아이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며 사랑이라고 여긴다.

데미트리코플러스(Stephanie A. Demetrakopoulos)는 “살해된 딸 빌러비드는 시이드 자신과 일치되는 인물로 미래의 잠재적 어머니이며 자아를 소유한 딸이었으므로 빌러비드의 죽음은 시이드 자신을 죽인 것이다.”<sup>17)</sup>라고 말한다. 시이드가 노예 사냥꾼에게 쫓길 때 느꼈던 두려움은 젖을 강탈당했을 때 느꼈던 감정과 같은 것으로 한 어머니이자 여성으로서의 자아 상실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노예 사냥꾼의 위협에서 자신의 자아를 지키는 유일한 방법으로 자신의 분

---

17) *Ibid.*, 53.

신인 빌러비드를 살해함으로써 자신이 겪었던 폭력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빌러비드 살해는 시이드의 이런 왜곡된 모성애에서 비롯된 것이다.

시이드의 극단적인 사랑은 상대방의 자아를 인정하지 못한 실수를 범한 것이다. 다시 말해 노예제도에서 백인들이 노예를 물질적, 재산적 가치로 간주하며 그들의 소유로 여겼던 잘못을 시이드 자신도 자기의 아이를 자신의 의지로 처리할 수 있는 소유물로 여기는 잘못을 범한 것이다. 그러나 모리슨은 시이드의 유아살해는 흑인들을 정신적 죽음으로 몰아가는 노예제도에서 그들이 주체적인 존재로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처절한 방법이었다고 말한다. 시이드의 생모가 노예선에서 백인들의 폭행으로 낳은 아기들을 한 번도 안아주지 않고 그대로 바다로 던져버린 행동 역시 흑인 여자 노예가 백인들에게 대항하는 유일한 저항수단이였다. 이것은 바로 흑인 여성들이 스스로의 모성을 통해 한 인간이자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다. 따라서 모리슨은 시이드를 통해 궁극적으로 흑인 여성들 속에 내재되어있는 강한 저항의식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할 수 있다.

빌러비드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죽일 수밖에 없었다고 말하는 시이드의 극단적인 모성애에 대해 폴 디는 “당신 사랑은 너무 짙어서 숨막혀.”(194)라고 말한다. 시이드가 이런 ‘진한 사랑(Too thick love)’을 갖게 된 것은 부성의 부재로 인해 혼자서 양성의 역할을 수행해야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흑인 여성들의 극단적인 모성애의 일면에는 그들이 아버지의 부재 속에서 가정의 가장 노릇을 하기 위한 일종의 방어적 수단이다. 시이드의 남편 할리는 자신의 아내가 스위트 홈에서 학교선생과 그의 조카들에게 폭행당하고 수모를 겪는 장면을 목격했음에도 그녀를 구해 줄 수 없었고, 그러한 무능력함과 자괴감은 그를 정신 이상 상태로 몰고 갔다. 할리는 그 사건 이후 “버터 교유기 옆에서 버터를 뒤집어 쓴 채 반쯤 넋이 나간 상태로 앉아있는 것”(82)을 끝으로 어디론가 사라져 버린다. 스템프 페이드도 할리처럼 가정을 지키지 못한 흑인 남성이다. 지금은 노예구출에 최선을 다하지만 이전에 그의 아내 베쉬티(Vashti)를 구할 수 없었다. 스템프 페이드는 이전의 이름이 조슈아였는데 그의 아내를 젊은 백인 주인에게 빼기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무기력하게 중얼거리기만 하였다. 결국



아내는 죽게 되고 그는 자괴감에 빠진다. 이처럼 노예제도에서 부성은 결코 존재할 수 없으며, 부성의 부재로 흑인 여성의 모성은 더욱더 강해지고 극단적인 형태로 변화하게 된다.

시이드는 유아 살해사건 이후 18년이 지나 두 아들이 가출하고 베이비 석스도 죽은 뒤 아기 유령이 출몰하는 124번지에 덴버와 고립되고 소외된 삶을 살아가는다. 그러던 중 폴 디의 방문과 정확한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러비드의 등장으로 새로운 삶의 국면을 맞는다. 여기에서 시이드는 스위트 홈에 대한 기억을 공유하는 폴 디와 그 이전의 과거 기억을 상기시켜주는 빌러비드 사이에서 갈등하게 되지만, 이들의 출현은 시이드에게 과거로의 여행을 시작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그러나 폴 디와의 여행이 과거를 묻고 미래로 향하는 여행이라면, 빌러비드와의 여행은 과거의 기억과 표현할 수 없었던 모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주기 때문에 결국 시이드는 빌러비드에게 더욱 빠져든다.

아기 유령이 출몰하는 124번지의 흑인 공동체로부터 단절되고 소외된 시이드는 아기 유령의 출몰에 대해 강력한 주문을 외워서 쫓자는 덴버의 말에 “내가 그 애를 사랑했던 것보다는 강력하지 않아.”(5)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살해라는 행동이 모성에 의해 정당화될 수 있는 가장 잘 사랑하는 방법이라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생각에서 자행된 유아 살해는 유령의 출몰보다도 더 강력한 시이드의 욕구에 대한 행동이며, 파괴적인 어머니로서의 모습이다.<sup>18)</sup>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은 흑인 노예이면서 자식을 가진 어머니인 시이드에게 자유란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자유뿐만 아니라 자식의 행복도 포함하는 자유이다.<sup>19)</sup>

시이드는 빌러비드가 죽은 후 그녀의 딸 덴버에게 그녀의 ‘진한 사랑’을 주고자 한다. 시이드는 덴버를 임신했을 때를 이렇게 회상한다. “너는(빌러비드) 나의 등에서 덴버는 뱃속에서 잠들어 있지만 마치 몸이 둘로 찢어지는 느낌이 었단다.”(238) 이것은 시이드가 덴버는 물론 죽은 딸 빌러비드와 동일한 자아를 공유하고 있음을 상징하며 그녀의 각별한 모성애를 나타내고 있다. 줄리아 크

18) Wilfred D. Samuels and Clenora Hudson-Weems, *Toni Morris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p. 103.

19) *Ibid.*, p. 114.

리스티바(Julia Kristeva)는 여성들이 임신했을 때 자궁 속의 태아로 인해 자신의 몸과 의식과 언어 등이 둘로 분리되는 고통을 겪게 되며, 그러한 과정을 통해 그들은 모성과 여성적 자아라는 이중적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말한다.<sup>20)</sup> 시이드도 빌러비드를 살해할 때 이 두 가지 정체성의 혼돈을 경험한다. 시이드는 노예생활에서 탈출하여 자유인이 되었지만, 그녀는 과거의 노예생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그녀는 현실 속에 그 장소가 현존하는 한 어떠한 기억도 잊혀 질 수 없으며 그 기억은 현실 속에서 반복된다고 말한다.

네가 그곳에 가면 -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던 네가 말이야 - 네가 거기 가서 그 자리에 서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야. 그 자리에 있다가 너를 덮칠 거야.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그러니까, 텐버야. 절대로 무슨 일이 있어도 거기 가면 안 된다. 절대로. 이제 전부 과거지사가 되었어도, 다 끝난 일이라도, 항상 그 자리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43~44)

텐버는 시이드의 말로 인해 장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되며 124번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고립된 생활을 하게 된다. 따라서 텐버는 미성숙하고 유아적인 모습으로 성장하게 되고, 이러한 미성숙한 모습은 124번지를 찾아온 폴 디에 대한 그녀의 태도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텐버는 자신에게서 엄마를 빼앗고, 자신의 유일한 친구인 아기유령을 내쫓은 폴 디에게 적대감을 갖게 된다. 폴 디가 124번지에 온 지 며칠이 지나도 떠나지 않자 폴 디에게 얼마나 이 근처를 어슬렁거릴 거냐고 물었고, 폴 디는 깜짝 놀라 컵을 바닥에 떨어뜨린다. 그러나 시이드는 텐버 대신 사과하며 텐버를 무조건적으로 보호한다. 폴 디는 텐버는 성인이라고 말하며 아이에 대한 집착은 위험한 것이며 가장 현명한 방법은 아주 조금씩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시이드는 텐버의 성장에 거부감을 가지며, 텐버는 자신이 언제나 보호해 주어야 할 아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어머니로서 시이드는 텐버의 성장을 인정해주지 않고 과잉된 모성으로

20) Julia Kristeva, "Women's Time," trans. Alice Jardine, *Signs* 7 (1981): 26.

그녀를 보호하기만 한다. 따라서 덴버에 대한 시이드의 모성애는 그녀를 성인  
으로 성장하는 것을 막고 자아를 한정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가지고 있다. 결국  
덴버는 어머니인 시이드의 태도를 이해하기 보다는 오히려 막연한 두려움을 갖  
게 된다.

폴 디의 방문이후, 목요일의 축제에서 폴 디와 시이드, 덴버로 이루어진 삼  
각형의 그림자는 가정이라는 결속을 이루는 듯 보였지만, 폴 디에 의해 쫓겨난  
아기 유령인 빌러비드의 출현으로 그 결속은 허물어진다. 축제에서 돌아온 폴  
디, 시이드, 덴버가 그루터기에 앉아 있는 검은 드레스를 입은 빌러비드를 발견  
하게 되고, 이때 시이드는 갑작스런 요의를 느낀다.

화장실에 당도할 때까지 참을 수가 없었다. 가는 도중에 스커트를 걷  
어 올려야만 했다. 그녀가 비워내는 오줌은 한도 끝도 없었다. 꼭 말 같  
아, 라고 생각했다가 끝도 없이 계속 나오자 아냐, 덴버가 태어나던 보  
트에 쏟아내던 양수 같아,라고 생각을 고쳤다. . . . 하지만 그때는 터져  
버린 자궁에서 쏟아져 나오는 양수를 막을 길이 없었고, 지금도 이 흐  
르는 물줄기를 막을 길이 없었다. (61)

보트 안에서 덴버를 낳았을 때 흘러던 양수처럼 계속해서 흐르는 물은 빌러  
비드의 갈증과 같이 일어나며, 이것은 어머니와 자식의 관계에서 재탄생과 새  
로운 삶이 시작하는 의식이라 할 수 있다.<sup>21)</sup> 한편 덴버는 집 앞에 있던 검은  
드레스를 입은 여인을 본 순간 집에서 내쫓긴 아기유령, 즉 죽은 언니가 돌아  
온 것임을 한눈에 알아본다.

시이드의 모성에 대한 덴버의 막연한 두려움을 탈바꿈 시켜주는 것은 바로  
빌러비드이다. 빌러비드는 덴버에게 그녀가 태어날 당시를 시이드의 목소리로  
들려줌으로써, 덴버는 시이드가 그때 겪었을 고통과 극단적 모성에 대해 점차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빌러비드와 시이드의 대화에서 시이드가 18년 전 유아  
살해라는 극단적 행동을 한 것은 “진한 사랑”의 결과임을 깨닫게 된다. 또한

21) Iyunolu Osagie, "Is Morrison Also Among the Prophets?: 'Psychoanalytic' Strategies in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28 (1994): 421.

빌러비드와 시이드의 파괴적이고 모순적인 모성애를 객관적이고 주체적 입장에서 바라봄으로써 시이드가 빌러비드에게 찢절매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노력한다.

정체를 알 수 없는 빌러비드의 모습은 마치 아기유령이 육화된 것 같은 의구심을 갖게 했지만, 결국 빌러비드의 유아적인 모습들은 시이드에게 자신의 살해된 딸이 돌아온 것이라는 착각을 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이는 시이드가 미처 표현하지 못했던 모성애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였기에 그녀는 점차 빌러비드에게 열중하게 된다. 이러한 착각들은 진 와이아트(Jean Wyatt)가 설명한 것처럼 “시이드가 자신을 주체로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생산하고 양육할 수 있는 모체, 자궁으로 인식하기 때문에”<sup>22)</sup> 생겨난 것이다. 즉 시이드는 아이들의 관계에 의해서만 자신의 자아가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다.

딸이 노예가 되는 것을 거부한 시이드에 의해 살해된 빌러비드는 개인적 기억, 노예제의 고통에 대해 전혀 알 수 없다. 그러나 빌러비드의 기억 속에 잔재해 있는 노예선에서의 기억은 시간과 장소에 대한 시이드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시간에 대해 말하고 있었단다. 나는 시간이란 걸 믿기가 너무 힘들어. 어떤 것들은 사라지지. 우리 걸을 스쳐 지나가버려. 어떤 것들은 그냥 머물러 있어. 전에는 그게 내 기억력과 상관이 있다고 생각했어. 어떤 일들은 까맣게 잊게 되지만, 또 절대로 잊을 수 없는 기억도 있다고. 하지만 그렇지가 않아. 장소들, 장소들은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야. 집이 불타서 터만 남으면, 집은 사라져버리지만, 그 장소는 - 그 장소의 잔상은 - 사라지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무르거든. 단순히 내 기억 속에 머무르는게 아니라 저 밖에, 세상 속에 정말로 남아 있던 말이야. 내가 기억하는 건 내 머리 저 바깥에서 떠돌아다니는 그런 풍경들일 뿐인 거야. 그러니깐 내가 생각을 하지 않아도, 심지어 내가 죽어버려도 내가 한 일들, 내가 아는 일들, 내가 목격한 장면들은 여전히 저 바깥에 존재한단 말이야. 그 사건이 일어난 곳 바로 그 현장에. (43)

---

22) Jean Wyatt, "Giving Body to the Word: The Maternal Symbolic in Toni Morrison's *Beloved*," *PMLA* 108(1993): 474~488.

시이드는 텐버에게 시간의 자연성에 대해 이야기하며, 과거는 시간 속에 묻혀 버리는 것이 아니라 ‘장소’라는 차원 속에 존재하며 집단적 무의식 속에 남아 있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노예의 경험도 없는 빌러비드가 기억해 내는 노예선에서의 생활은 집단 무의식에서 나타난 것이다. 개인적 정신의 과거와 집단적 역사의 사람인 빌러비드가 기억하는 노예선에 대한 서술은 말할 수 없는 생각과 사실을 숙고하게 만든다.<sup>23)</sup> 그러므로 시이드는 빌러비드와의 결속으로 빠져들고 모성애의 발휘로 자신의 지나간 과거의 고통을 보상받으려 한다.

호로비츠의 주장처럼 빌러비드의 출현이 단지 시이드의 죽은 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흑인 전체를 확대, 함축시킨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빌러비드가 말하는 노예선의 기억들은 시이드의 과거 기억들과 일치하며 하나의 이야기를 엮어 나간다.<sup>24)</sup> 이것은 빌러비드가 시이드의 모든 과거를 재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빌러비드는 시이드의 딸로만 보기에는 너무 많은 기억을 가지고 있다. 빌러비드는 시이드 어머니 이전의 세대가 아프리카에서 끌려 올 때의 노예선의 모습을 상세히 말하고 있다.

피부가 없는 사람들이 귀가 빠개질 정도로 시끄러운 소리를 내는데 나는 죽지 않았어 빵은 바다 빛깔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그걸 먹을 수도 없어 태양이 내 눈을 감기는데 죽을 수 있었던 사람들은 한 무더기로 쌓여 있고 . . . 내가 원하는 얼굴을 가진 여자가 저기 있네 내 얼굴인 얼굴 그들은 빵 빛깔의 바다로 떨어지고 그 여자는 귀에 아무것도 달고 있지 않아 내 얼굴 위에서 죽은 그 남자의 이가 있다면 저 목의 쇠목걸이를 물어뜯어 풀어줄 텐데 . . . 현재야 언제나 현재야 내 얼굴을 한 여자 속에 있는 건 바다 속 근사해 (249)

이 장면에서 피부없는 사람들은 백인 노예잡이들이고, 배 안에서 웅크리고

23) Lynda Koolish, "Fictive Strategies and Cinematic Representations in Toni Morrison's *Beloved*: Postcolonial Theory/Postcolonial Text," *African American Review* 29 (1995): 134~145.

24) Deborah Horvitz, "Nameless Ghosts: Possession and Dispossession in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7 (1989): 157~167.

앉아 있는 모습은 흑인들이 노예로 끌려가는 모습이다. 겹겹이 쌓여있는 사람들은 노예잡이들이 죽인 흑인들이다. 또한 시이드의 어머니의 “바다를 건너왔다.”(74)라는 말은 아프리카에서 끌려온 흑인들의 상황을 드러내는 것이다. 노예선에서 백인들에게 비인간적인 수모를 당한 것이고, 빌러비드의 이런 기억은 과거 흑인 노예들의 집단적 기억을 대변한다. 그러므로 빌러비드는 개인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역할과 흑인들의 “말할 수 없는, 그래서 말해지지 않는 생각들”을 들추어내는 역할을 동시에 한다.

시이드는 자신의 어머니를 단순히 “ma’am”으로 대표되는 많은 흑인 여성 중의 한명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빌러비드의 출현 이후 어머니에 대한 시이드의 기억은 “그녀는 머리를 한 번도 빗겨주지 않았나요?”(72)라는 빌러비드의 질문으로 재기억된다.

내 여자? 우리 어머니 말씀이니? 머리를 빗겨준 적이 있대도, 기억이 나질 않아. 들관에서 일하는 모습 몇 번밖에 본 적이 없거든. 그리고 쪽 물을 들일 때 한 번 봤지. 아침에 눈 뜨면, 벌써 줄 서서 일하고 계셨어. 달빛이 휘영청 밝으면 달빛을 받고 일을 하셨지. 일요일이면 나무토막처럼 주무셨어. 아마 내게 젖을 물린 건 2~3주쯤일 거야. 다른 사람들도 다 그랬으니까. 그리고 나서 다시 논으로 돌아가셨고 나는 젖을 물리는 일을 하는 다른 여자의 젖을 빨았어. (72)

시이드의 과거를 들추어내는 빌러비드의 역할은 시이드가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잊었던 어머니의 언어, 춤, 아프리카에 대한 집단 무의식을 불러일으키는 역할을 한다. “다이아몬드는 어디 있어요?”(69)라는 빌러비드의 질문에 수정 귀걸이를 떠올리는 시이드는 기억의 저편에 묻혀 있던 출생의 기억과 어머니에 대한 회상을 환기시킨다.

“진짜란다. 정말이야, 꼬마 아가씨, 시이드야.”(“잘 들어, 너에게 말해줄 것이 있으니까 정신차려서 잘 들어, 시이드야.”) 그리고 정말로 낸은 시이드에게 진실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녀는 시이드에게 어머니와 자신이

바다에서부터 함께였다고 말해주었다. 두 사람 다 선상의 선원들에게 여러 번 당했다고. “너만 빼고 아이들을 전부 내던져버렸단다. 선원한테서 얻은 아이 하나는 섬에다가 버리고 왔지. 다른 백인들의 아이들도 다 버려 버렸다. 이름도 없이 내다버렸어. 너한테는 어머니가 네 아버지였던 흑인의 이름을 지어주었다. 그 남자의 몸은 두 팔로 껴안아주었지. 다른 남자들은 절대로 두 팔로 껴안지 않았다. 절대. 절대. 너한테 말해 두지만. 정말이란다. 꼬마 아가씨 시이드야.” (74)

빌러비드의 갑작스런 질문으로 시이드는 그동안 얼굴도 잘 알지 못한 채 원망하기만 했던 어머니의 모습을 회상하며 어머니를 이해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자신이 빌러비드를 죽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아이를 버릴 수밖에 없었던 어머니를 이해하게 된 것이다. “만일 우리가 조상들과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실제로 죽은 것이나 다름없다.”<sup>25)</sup>는 모리슨의 말처럼 어머니를 이해하고 공동체적 유대감을 느끼게 되는 것은 단절되고 왜곡된 역사를 이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것은 시이드를 비롯한 흑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한 해답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폴 디가 124번지를 나간 이후, 시이드와 빌러비드는 강한 결속력을 갖게 된다. 하지만 폴 디와의 결속이 흑인 사회로 나아가는 첫 걸음이었음에 반해, 빌러비드와의 결속은 그들만이 나눌 수 있는 내부적 세계에만 머무는 것이다. 즉 빌러비드와 시이드의 결속으로 시이드는 점점 빌러비드에게 집착하게 된다. 빌러비드는 시이드를 모방하고 시이드처럼 말하고 행동하여, 덴버조차 누가 누구인지 혼돈할 만큼 시이드와 빌러비드는 일치된다. 시이드는 빌러비드를 위해 생업도 포기하고 새로운 고립으로 치닫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빌러비드가 커갈수록 시이드는 점점 작아지고, 빌러비드로 인해 되찾았던 자신의 자아를 상실하게 된다.

시이드와 빌러비드의 모녀 관계 속에서의 모성은 파괴적이고 극단적이며 자기중심적이다. 이와 달리 시이드와 덴버 사이에서는 상대방의 이해와 치유를

---

25) Marsha Jean Darling, "In the Realm of Responsibility: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The Women's Review of Books* 6 (1988): 344.

통한 모성애의 회복을 이룬다. 즉 빌러비드를 위해 생활하며 새로운 고립으로 치닫는 시이드를 지켜보던 덴버는 빌러비드를 시이드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이드를 빌러비드로부터 보호해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 덴버가 시이드를 보호해야겠다는 심경의 변화는 시이드가 왜 빌러비드를 죽일 수 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내면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노예제도에서 흑인 여성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게 되고, 진한 모성에서 비롯된 진정한 사랑을 느끼게 된다. 그리하여 덴버는 진정으로 시이드를 이해하고 그녀를 구하기 위해 흑인 여성 공동체로 나아가 도움을 구하게 된다.

124번지에 몰려온 흑인 공동체는 유령을 쫓는 의식과도 같이 빌러비드를 몰아내는 일이 거행될 때, 시이드는 자신에게 124번지를 빌려주고 베이비 석스에 게 일거리를 제공한 보드윈(Bodwin)을 얼음꼬챙이로 공격한다. 그는 덴버를 데리러 오는 길이었다. 하지만 시이드는 보드윈을 도망친 자신을 잡으러 왔을 때의 학교선생으로 착각하여 공격한 것이었다. 이 일로 빌러비드는 사라지고, 시이드와 빌러비드가 분리되면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가는 시이드는 과거의 기억과 고통의 상징인 빌러비드를 뒤로하고 현실과 미래로 나아가게 된다. 이것은 시이드의 불충분했던 과거가 육화된 빌러비드와의 생활로 인해 충분히 채워졌기 때문이며 그러므로 빌러비드는 더 이상 124번지에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이다. 즉 흑인 공동체로부터 소외되었던 시이드는 빌러비드로 인해 과거 속에 묻혀 자신의 자아를 잃었다가 빌러비드와 분리됨으로써 흑인 공동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이다. 빌러비드가 사라진 후, 124번지는 안정을 되찾고 다시 폴 디가 돌아오게 된다. “우리한테는 누구보다 어제가 많다는 것과 미래를 같이 공유해야 한다는 것과 그리고 자신이 가장 소중하다.”(323)는 폴 디의 말에 시이드는 새로운 자아를 갖게 된다. 시이드의 이러한 여정은 빌러비드를 통해 다하지 못했던 모성애에 대한 죄책감에서 벗어나 과거를 치유함으로써 자아를 찾고, 현실로 돌아와 폴 디, 덴버와 함께 안정된 미래로 나아갈 힘을 얻는 것이다.



## 2. 공동체의식을 통한 정체성 회복

모리슨은 그녀의 작품에서 과거의 노예제도로 인해 왜곡된 흑인의 역사를 재정립하여, 노예제도로 인한 흑인들의 정체성 상실이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흑인 전체의 것임을 알리고자 하였다. 즉 정체성이라는 개념은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서 확립될 수 있다는 것이다.

흑인 공동체의 특성은 그 공동체 자체 내의 문화적 유산과 전통을 포함하고 있다. 흑인 영가와 블루스 등의 음악과 춤으로 대변되는 그들의 유산은 노예제도라는 상황에서도 서로를 결속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즉 공동체는 이러한 가치와 유산을 공유하여 개인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치료자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리슨은 『빌러비드』에서 공동체가 한 개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흑인 공동체는 노예생활로 인해 포괄적이고 객관적인 사고의 체계를 가지지 못하고 자신들이 경험하지 못한 세계나 미래에 대해 지식적 한계를 보이는 부정적인 면도 지니고 있다. 이 작품에 나타난 신시내티 마을 공동체도 이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는 시이드나 베이비 석스의 오만함에 등을 돌리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마을 공동체의 사람들은 후에 덴버를 통해 시이드가 처한 상황을 이해하려 하고 과거의 살해사건에 대한 죄책감으로 124번지로 몰려와 시이드를 구한다. 이는 질투와 시기로 공동체가 분열되었지만, 생존을 위한 위급한 상황에서는 화합과 협력이라는 원래의 공동체 모습으로 돌아가 개인과 사회의 구원을 위해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시이드의 정체성 형성과 공동체와의 결속에 이르는 과정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은 덴버와 베이비 석스이다. 오하이오 강가에서 백인소녀 에이미 덴버(Amy Denver)의 도움을 받고 태어난 덴버는 흑인과 백인의 화해와 회복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런 덴버의 또 다른 중요한 역할은 시이드와 공동체를 연결시키는 매개체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그녀가 처음부터 시이드를 공동체와의 결속으로 이끈 것은 아니다. 덴버는 언니 빌러비드를 살해한 시이드의 이상한 행동에 겁을 먹고, 시이드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 이처

럼 덴버가 시이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덴버가 시이드처럼 고통스런 노예생활을 경험한 일이 없었기 때문이다. 시이드 또한 빌러비드가 나타나기 전까지 덴버에게 그녀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하지 않았고, 덴버는 외부와 단절된 채 18년 동안 124번지 안에서 고립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그리하여 덴버는 외부세계에 대한 관심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이야기 가운데서 자신과 관계된 과거에만 관심을 가진 채 더 큰 흑인 공동체와 역사적 현실로부터 소외되어 성장할 기회를 얻지 못하게 된다.

오랫동안 고립된 생활을 해 온 덴버는 빌러비드의 출현 이후 확연히 달라진다. 빌러비드는 시이드에게 어머니에 대한 기억을 환기시켜 ‘이야기’ 하게 했듯이, 시이드에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덴버가 가장 좋아하는 자신의 출산에 대한 얘기를 빌러비드에게 다시 이야기하게 한다. 이로 인해 덴버는 시이드를 자기 또래의 한 흑인 여성으로 거리를 두고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이것은 후에 덴버가 시이드의 이야기를 듣고 시이드의 행동을 노예제도라는 역사적인 맥락과 관련해 생각할 수 있도록 만든다.

시이드가 자신들을 해할까봐 빌러비드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느끼던 덴버는 시이드에 대한 빌러비드의 파괴적인 소유욕을 보고 시이드를 구할 결심을 한다. 그리고 124번지를 벗어나 공동체와의 결속을 꺾하게 된다.

그러다 시이드가 못 먹고 입에서 뱉어내자 그 모습이 총탄처럼 덴버를 뒤흔들었다. 그녀(덴버)가 애초에 시작한 일, 즉 엄마로부터 빌러비드를 보호하는 일은 이제 빌러비드로부터 엄마를 보호하는 일로 바뀌었다. 이제 엄마가 둘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면 빌러비드가 무슨 짓을 하겠는가 말이다? 무슨 일이 이러나든, 세 사람이 있어야 견뎌낼 수 있었다. 두 사람으로는 곤란하고, 빌러비드도 시이드도 다음날 어떻게 될지(시이드는 빌러비드가 행복하면 마냥 행복했고, 빌러비드는 시이드의 헌신을 크림처럼 즐겁게 만끽했다.) 신경쓰지 않았기에, 덴버는 전부 자기 책임이라는 걸 깨달았다. 그녀는 마당을 떠나야만 했다. 세상 끝으로 발을 내딛고 두 사람을 남겨두고 떠나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286)

과거와 현재의 연결 고리인 오하이오 강가에서 태어난 덴버는 시이드를 도와준 에이미 덴버의 이름을 따서 덴버라 불려진다. 따라서 덴버는 흑인과 백인의 결합을 상징하기도 한다.<sup>26)</sup> 빌러비드가 기억을 강요하는 잊혀져야 할 과거를 상징하는 존재라면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던 덴버는 과거를 정당하게 인식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을 상징하는 존재이다.<sup>27)</sup>

하지만 역사와 공동체에서 소외된 시이드와 공동체를 결합할 수 있도록 덴버를 돕는 존재는 베이비 석스이다. 베이비 석스는 시이드의 살인행위를 노예제도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노예사회에서 흑인들의 삶을 ‘전투가 아니라 폭동’이라고 표현했던 그녀는 백인사회에서 흑인들이 겪는 절망적인 삶을 꿰뚫어 보고 있으면서도 계속 싸워나가야 한다고 덴버에게 가르쳐 준다. 덴버에게 들려오는 할머니 베이비 석스의 목소리는 덴버가 세상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준다.

“하지만 백인들을 막을 길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물론 없지.”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알아야지. 그리고 마당 밖으로 나가야지. 어서 가렴.” (288)

러쉬디(Rushdy)에 의하면 “알아야 할 것(Know it)”은 역사적인 앎이고 “마당(yard)”은 공동체를 의미한다고 한다.<sup>28)</sup> 다시 말해 덴버는 시이드의 이야기를 개인적인 이야기로서가 아니라 흑인들의 역사적 상황에서 비추어 보게 된 것이다. 덴버의 기억 속에 자리하고 그녀에게 용기를 준 베이비 석스는 흑인 선조의 “조상의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신시내티 마을 공동체를 이끌어

26) Jacqueline Trace, "Dark Goddesses: Black Feminist Theory in Morrison's *Beloved*," *OBSIDIAN II: Black Literature in Review* 6 (1991): 21.

27) Ashraf H. A. Rushed, "Daughters Signifying History: The Example of Toni Morrison's *Beloved*," *American Literature* 64 (1992): 57.

28) *Ibid.*, 580.

가는 정신적 지도자로 백인들에게 착취되어 온 흑인의 실체를 그들 스스로가 사랑해야 한다고 말한다.

예배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깔깔 웃는 어린아이들, 춤추는 남자들, 우는 여자들, 그러다 보면 전부 뒤죽박죽이 되었다. 여자들은 울음을 그치고 춤을 추었다. 남자들은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다. 아이들은 춤을 추었고, 여자들은 깔깔 웃어댔고, 아이들이 울어대다가 마침내, 녹초가 되고 갈기갈기 찢긴 채, 축축하게 젖어 모두들 헉헉 숨을 몰아쉬며 공터에 다 드러누워 버릴 때까지. 그리고 이어지는 침묵 속에서, 베이비 석스는 그들에게 그녀의 한없이 넓고 커다란 심장을 나누어 주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죄스러운 삶을 깨끗이 씻어내고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그들에게 ‘이 세상의 축복받은 이들이며, 세상을 약속받은 온유한 자들이며 기필코 영광을 얻을 순수한 이들’이라고 말하지도 않았다.

대신 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은총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눈앞에 보이지 않는 은총이라면, 결코 얻을 수 없다고. (103)

노예생활로 인한 억압의 상처를 베이비 석스는 그들 고유의 방법인 노래와 춤으로 치유했고, 이러한 치유의 방법과 그들의 문화적 유산인 춤과 노래는 흑인 공동체의 결속을 강화시켰다. 그러나 유아 살해사건 전날 베이비 석스가 베푼 과도한 잔치로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오만함을 비판하고 그녀의 풍요함을 시기하여 결국 그녀를 공동체로부터 소외시킨다. 이로 인해 시이드를 잡으러 온 백인 노예사냥꾼 일행을 보고도 공동체는 이를 124번지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시이드가 자기 딸을 죽이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다.

그러나 덴버가 공동체로 나가 그들의 도움을 청하자 그들은 묻어 두었던 124번지에 대한 죄책감과 잃어버렸던 양심을 회복할 기회를 갖게 된다. 덴버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시이드가 처한 상황을 알게 되고, 공동체의 여성들은 엘라(Ella)를 중심으로 결집한다. 엘라 자신도 시이드처럼 유아살해의 경험이 있는 여인으로, 시이드가 자기의 아이를 죽인 후 붙잡혀 갈 때도, 감옥

을 나온 후에도 공동체의 도움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시이드의 태도를 경멸하였다. 하지만 시이드가 얼마나 고통 받고 있는지 덴버에게 전해 듣고 가장 적극적으로 시이드를 구하려 한다.

시이드가 무슨 짓을 했건, 엘라는 과거의 잘못이 현재를 좌지우지한다는 생각 자체가 싫었다. 시이드의 죄는 엄청난 것이고 그녀의 교만은 더 기가 막혔지만, 죄악이 제멋대로 날뛰며 염치없이 집안을 돌아다니는 건 용납할 수 없었다.

매일매일의 삶을 사는 것도 운명의 진이 빠지는 일이었다. 미래는 일몰이고, 과거는 뒤에 남겨두고 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과거가 뒤에 얽전히 남아 있지 않는다 해도, 발로 짓밟아 말을 듣게 해야만 하는 법이다. 노예의 삶, 자유인의 삶. 양자를 막론하고 매일매일은 시험이고 시련이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믿거나 의지해서는 안 된다. (302)

124번지에 도착한 엘라와 마을 여인들은 비대해진 몸으로 웃고 있는 빌러비드와 왜소하고 야윈 시이드를 보고 먼저 말이 아닌 소리(sound)로 의식을 행한다. 베이비 석스의 치유의식이 재현되는 것처럼 마을의 여인들은 노래하기 시작한다. 이 의식을 통해 여성공동체는 시이드를 구할 뿐만 아니라 그들 자신의 잊혀진 목소리를 되찾으며 그들을 억압하고 있는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아를 회복하게 된다. 즉 124번지를 둘러싸고 있던 오만과 교만의 벽이 무너지고 옛날 개간지에서 하나가 되어 베이비 석스의 설교를 듣던 때처럼, 그들은 다시 시이드를 구하기 위해 뭉침으로써 과거를 이야기하고 공유함으로써 서로의 유대감을 형성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극단적 모녀관계로 정체성을 상실해가던 시이드는 덴버의 요청으로 빌러비드를 쫓아내기 위해 124번지로 몰려오는 마을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이 때 덴버를 직장에 데려다 주려고 오는 보드윈을 학교선생으로 착각하게 된다. 시이드는 18년 전 유아 살해사건의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 그 날의 사건이 현재에서 재현되는 것으로 착각한다. 그러나 시이드는 과거와는 달리 그녀의 딸인 빌러비드를 보호하기 위해 “안돼 안돼 안돼안돼안돼”(309)를 외치며 얼음꼬챙이를

들고 보드윈에게 직접 달려가 그를 찌르려고 한다. 즉 과거와 동일한 상황에서 시이드는 공동체의 힘에 의해 과거와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아이를 희생시키는 수동적인 저항보다 폭력을 가해오는 대상을 공격함으로써 자신을 억압하고 있던 과거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한편 시이드의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던 빌러비드는 그녀의 사랑을 확인하고 숲 속으로 사라진다. 시이드가 기억조차 하기 힘든 과거의 사건을 정면으로 맞서서 그 과거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게 되었을 때, 과거의 상징인 빌러비드는 사라진 것이다. 시이드는 공동체 여성들의 기도와 노래에 의한 의식을 통해 지금까지 억눌렀던 과거의 고통과 고립 속에서 해방되어 공동체로 복귀하게 된다.

시이드한테 그 광경은 공터가 자기를 찾아온 것 같았다. 뜨거운 열기와 지글지글 끓던 잎사귀까지, 여자들의 목소리가 한데 합쳐져 말의 등허리를 분질러버릴 정도로 강력한 소리, 암호와 열쇠, 문을 열 수 있는 꼭 맞는 숫자 조합을 찾아 헤매던 그때 그 공터가 그녀를 직접 찾아온 것 같았다. 완벽한 화음을 찾아낼 때까지 목소리에 목소리를 덧쌓아가다가, 완벽한 소리를 찾으면 그건 심해의 깊이를 재고 밤나무 꼬투리를 흔들어 떨어뜨릴 만큼 강력한 음파가 되어 밀려들었다. 그 소리의 물결이 시이드를 덮쳤고, 그녀는 그 물에 세례를 받은 사람처럼 덜덜덜 떨어졌다.  
(308)

이처럼 시이드의 구원은 개인적 힘으로 불가능하며, 한때 그녀가 속했고 과거를 공유한 공동체와 함께 할 때 가능하게 된다. 시이드는 자신의 억압되고 고통스런 과거를 빌러비드를 통해 “재기억”하고 그것을 여성공동체의 도움으로 극복하여 자신의 자아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모리슨은 이 작품에서 억압과 상처의 과거를 풀어가는 해결책으로 과거를 회피하지 않고 직시해야 한다는 것과 그러한 과정과 노력이 공동체에 기반을 두고 있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 V. 결론

모리슨은 자신의 소설 창작의 원동력이 사랑과 정체성 탐구라고 밝히고 있으며 이를 가장 잘 드러낸 작품으로 『빌러비드』를 꼽았고, 이 작품에서 노예제도의 상황에서 자신의 딸까지 살해하게 되는 한 흑인 여성의 시련을 그리면서 역사의식과 흑인 공동체와의 관계 속에서 자아를 인식하는 과정을 섬세한 언어와 초현실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그녀는 일차적으로 모성애를 박탈당한 자아를 회복시키는 매개체로 보고 있다. 모성애는 흑인 여성들이 자신의 뿌리를 찾는 시작이며, 더 나아가 그들이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을 때 그들의 아픈 역사는 치유되며 공동체와의 유기적 관계 속에서 진정한 회복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또한 고통스럽고 끔찍한 과거를 재기억을 통해 극복하고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해 유대감과 결속을 강화시켜 완전한 자아를 인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시이드가 노예제도에서 겪어야만 했던 고통은 노예제도에서 흑인이 겪는 전형적인 모습이며, 그녀가 겪은 정체성 상실과 인간성의 말살은 시이드만의 경험이 아니라 흑인 모두의 경험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시이드의 자식살해는 노예제도의 고통을 자식에게 물려주지 않고자 하는 흑인들의 처절한 외침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시이드가 죽은 아이의 유령에 의해 삶을 지배당하는 모습은 노예로서의 과거를 떨쳐버리지 못하는 흑인들의 모습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모리슨은 자식을 사랑한 마음이 너무 짙어 자신과 같은 끔찍한 노예 생활을 안겨주는 것보다 자식을 살해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한 시이드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시이드에게 주어진 응보는 자신이 죽인 딸의 환생에 의해 자신의 삶을 지배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빌러비드는 시이드의 과거를 재기억하게 하여 그녀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게 하지만, 시이드가 자신을 죽임으로써 자신의 미래를 소유했던 것처럼 자신도 시이드의 현재는 물론 과거와 미래까지도 소유하고자 했던 것이다.

또한 모리슨은 과거의 역사에 의해 현재가 좌우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시이드는 빌러비드라는 과거의 환생이 현재에 남아 그녀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기에, 마을 공동체를 통해 빌러비드를 몰아내도록 한다. 마을 공동체가 과거의 상징인 빌러비드를 몰아내는데 동조할 수 있었던 것은 빌러비드가 시이드 개인만의 과거가 아닌 흑인 공동체의 과거였기 때문이다. 공통된 그들의 과거는 흑인 공동체를 결속시켜 이 작품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이드를 과거로부터 구해내고 공동체 자신들의 과거까지도 극복하게 만들 수 있었던 것이다. 즉 빌러비드는 미국 흑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노예의 역사를 그대로 그들에게 되돌려줌으로써 그들 스스로가 고통스런 과거를 재해석하고 그것과 화해하여 결국엔 과거로부터 벗어날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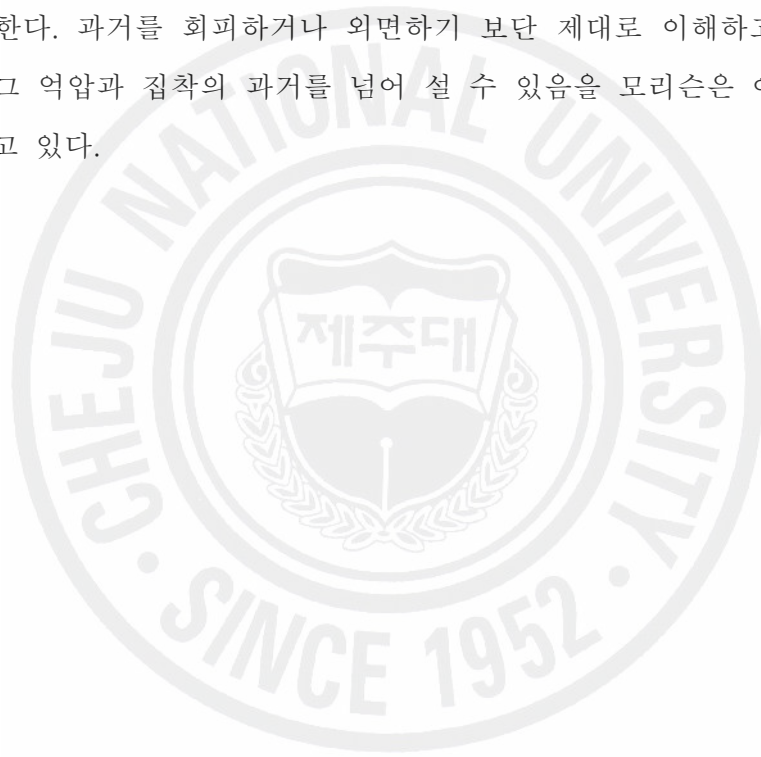
본 논문은 시이드라는 한 흑인 여성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제대로 표현해 보지 못한 모성애를 실현할 수 있게 해주며, 또 부정적으로 이에 너무 집착해 시이드의 자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빌러비드와 시이드를 빌러비드로부터 구하고 공동체와의 결속으로 이끄는 덴버, 그리고 시이드가 공동체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녀를 다시 받아 준 마을 공동체의 역할도 함께 살펴보고 있다. 자아정체성 확립을 통한 시이드의 긍정적인 재생의 모습은 한 개인의 정체성 확립을 넘어선 흑인 전체의 정체성의 재생을 의미한다.

흑인문학과 미국문학 전통에서 모리슨의 작품은 흑인의 문화유산을 보존하여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선배작가들의 기본 입장을 계승하되 이 문제를 여성의 시각에서 재조명함으로써 흑인문학의 지평을 확대시킨다. 또한 흑인여성들이 겪어 온 특정한 경험을 진실하게 그린다는 점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를 뛰어난 문학기법 안에 담아낸다는 점에서 모리슨의 소설은 기존 전통을 뛰어넘었다고 할 수 있다. 모리슨은 노예제도하에서 고통스런 경험을 직접 체험한 흑인 여성의 삶을 사회적,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루어 백인 중심의 미국문학 전통과 남성 중심의 미국 흑인문학 전통을 흑인 여성의 시각에서 혁신적으로 나타낸 작가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리슨은 특정 집단의 세계를 진실하게 형상화하면서도 그 안에 남성과 여성, 흑인과 백인의 대립구도를 넘어 모든 인



간들이 겪는 삶의 문제를 포괄하는 보편성까지 성취함으로써 인종과 성을 초월하여 모든 인간에게 호소력 있는 문학세계를 구축하고 있다.

모리슨은 “이건 전하여질 이야기가 아니다.(This is not a story to pass on.)”(324)라는 말을 세 번 반복한다. 그러나 그녀의 이러한 말은 역설적인 것으로 그녀가 말한 내용이 오히려 반드시 기억되고 후대에 전수되어야 할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모리슨은 고립된 개인의 노력과 치유만으로는 미래로의 회복이 불가능하며 자기자신, 남성, 공동체 등 여러 사람이 합해진 사회 속에서 올바른 사랑의 실현만이 그들의 과거를 치유하며 미래로 전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과거를 회피하거나 외면하기 보단 제대로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만 그 억압과 집착의 과거를 넘어 설 수 있음을 모리슨은 이 작품을 통해 강조하고 있다.



## BIBLIOGRAPHY

### 1. Primary Sources

Morrison, Toni. *Beloved*. New York: Vintage Books, 2004.

### 2. Secondary Sources

Brinkley, Alan. *The Unfinished Nation: A Concise History of the American People*. New York: McGraw-Hill, 1993.

Christian, Barbara. *Black Feminist Criticism: Perspective on Women Writers*. New York: Pergamon Press, 1985.

Darling, March. "In the Realm of Responsibility."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Ed. Danille Taylor-Guthrie. Starkville: Mississippi UP, 1994.

Darling, Marsha Jean. "In the Realm of Responsibility: A Conversation with Toni Morrison." *The Women's Review of Books* 6 (1988).

Demetrakopoulos, Stephanie A. "Maternal Bonds as Devourers of Women's Individuation in Toni Morrison's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26 (1992).

Denard, Carolyn. "The Convergence of Feminism and Ethnicity in the Fiction of Toni Morrison."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e Y. McKay. Boston: G.K. Hall, 1998.

Ellison, Ralph. *Shadow and Act*. New York: Vintage, 1972.

Horvitz, Deborah. "Nameless Ghosts: Possession and Dispossession in *Beloved*." *Studies in American Fiction* 17 (1989).

Koo, Eunsook. *The Politics of Race and Gender: Mothers and Daughters in the Novels of Toni Morrison, Alice Walker, Maxine Hong Kingston, and Joy*

- Kogawa. Dissertation,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Stony Brook, 1993.
- Koolish, Lynda. "Fictive Strategies and Cinematic Representations in Toni Morrison's *Beloved*: Postcolonial Theory/Postcolonial Text." *African American Review* 29 (1995).
- Kristeva, Julia. "Women's Time." Trans. Alice Jardine. *Signs* 7 (1981).
- Krumholz, Linda. "The Ghosts of Slavery: Historical Recovery in Toni Morrison's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26 (1992).
- Osagie, Iyunolu. "Is Morrison Also Among the Prophets?: 'Psychoanalytic' Strategies in *Beloved*." *African American Review* 28 (1994).
- Rigney, Barbara Hill. *The Voice of Toni Morrison*. Columbus: Ohio State UP, 1991.
- Rushed, Ashraf H.A. "Daughters Signifying History: The Example of Toni Morrison's *Beloved*." *American Literature* 64 (1992).
- Russell, Sandi. "It's OK to say OK: An Interview with Toni Morrison." *Critical Essays on Toni Morrison*. Ed. Nellis Y. McKay. Boston: G. K. Hall, 1988.
- Samuels, Wilfred D. and Hudson-Weems, Clenora. *Toni Morrison*. Boston: Twayne Publishers, 1990.
- Trace, Jacqueline. "Dark Goddesses: Black Feminist Theory in Morrison's *Beloved*." *OBSIDIAN II: Black Literature in Review* 6 (1991).
- Wyatt, Jean. "Giving Body to the Word: The Maternal Symbolic in Toni Morrison's *Beloved*." *PMLA* 108 (1993).
- 김의락. 『영미문화읽기』. 부산: 부산외국어대학교출판부, 2000.
- 신재민. 「Toni Morrison 소설 연구: 흑인/여성 정체성추구의 주제와 서술구조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대학원, 1997.
- 이승은. 『토니 모리슨』. 서울: 평민사, 1999.
- 최재구. 「토니 모리슨 소설에 나타난 '이중의식' - 분열에서 공존으로」. 『현대영미소설』 제7권 1호 (2000).

<Abstract>

Community Spirit and Recovery of Identity  
of Black Women in *Beloved*

Hyun-ju Ko

Major in English Education,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J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ong-min Byun

With appearance of black and minority literature in the United States, Toni Morrison(1931-) is recognized as a leading African-American woman writer in making a historical reevaluation of the tradition of African-American literature. She has expanded the horizon of black literature by redefining the issue of black female identity from the viewpoint of black women. In addition, she has gone beyond her predecessors, writers who were willing to search for individuality by sustaining the traditional cultural of the black community.

Morrison describes the lives of black people which have been dominated up to the present by the experience of slavery, the most horrible past through her 1988 Pulitzer Prize-winning novel, *Beloved*. She uses a peculiar way, called "rememory", which represents the unwritten interior life of the black people. She believes that black people can rid themselves of their hereditary pressure when they can remember their past. This "rememory" is a way that can recover their identity which had been destroyed by slavery. The aim of this thesis is to analyse Morrison's recovery of black identity and the reconstruction of community in

---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2007.

*Beloved.*

Sethe isolates herself from the black community because of the guilty experience of killing her daughter. This tragic experience destroys Sethe's life bodily and spiritually. The tension between the desire for forgetfulness and the need of memory conflicts in Sethe's psychology. Sethe's recovery begins with return of her murdered but incarnated daughter, Beloved.

Beloved has manifold identities. She is not only Sethe's murdered daughter but also the embodiment of the anonymous black people who had suffered and were killed during the Middle Passage. The most important role Beloved plays in the novel is to help Sethe remember the past in order to forget. Through rememory the first step toward completely forgetting is to make Sethe face the past. In the conversation with Beloved, Sethe comes to tell the unspeakable truth which is too painful to narrate. The process of self-expression enables Sethe to be free from the painful past. Denver performs the daughter of the future. She affirmatively returns to her society and restores her Afro-American heritage. Her initiation into maturity enables her to acquire the power of breaking through her mother's guilty isolation and solidifying the black community. With the help of her two daughter, Sethe finally shows the signs of recovery from her past.

In conclusion, Morrison suggests a way of reconstruction of identity and community in *Beloved*. And she becomes a healer of black people because she heals the pain of her people in her works.